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제584호

지면안내

04 사회  
방치되는 불법 방 쪼개기에 남루한 청춘

05 기획  
대학 아닌 대학? 전문대에 다닌다는 것은...

06-08 제37회 한성문학상

09 사람  
새로운 시도가 있는 곳에,  
삶의 재미가 있다

## 2달 만에 또다시 화재 발생



▲24일 오후 1시 33분경,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자욱한 우촌관 1층 통신실 앞이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3분경 우촌관 1층 통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발화 지점이 검게 그을리고 교내 유선전화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대학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우촌관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켰으며, 화재 진압이 완료된 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노후화된 통신실 내 통신장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발화 지점은 통신 장비 전선 합선으로

드러났으며, 추가적인 원인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담당한 황현준(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 반장은 “발화 지점이 통신장비의 전선 합선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이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돼 별도의 원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약 16분 만에 진화됐다. 사건은 우촌관 내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시작됐다. 보안업체 직원이 화재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한 지 5분여만에 성북소



▲우촌관 주차장 앞, 화재 진압을 위해 성북소방서가 출동했다.

방서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진압은 4분만에 완료됐다. 이후 13시 56분, 화재는 최종 진압됐다. 화재 발생 당시 통신실 주변은 검은 연기와 가스 냄새로 가득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우촌관 전 층을 돌아다니며, 내부에 있는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업체 직원은 “화재 발생 당시 학교 관계자들과 1층부터 7층을 반복적으로 다니며 학생들을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통신실 내 장비와 발화 지점 주변 손실은 불가피했다. 특히, 통신실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연소됨에 따라 교내 일부 유선전화기 마비되는 불편함이 야기되기도 했다. 대학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대체 통신장비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성현(정보화팀) 팀원은 “대체 장비를 통해 통신 복구작업을 마친 상황이지만, 일부 복구가 되지 않은 부서를 직접 방문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5개년 총학 공약 분석, 그 결과는?

2023학년도 총선거 기간을 맞아 본사는 최근 5개년 총학총회(이하 총학)의 공약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34대 ‘등대’ ▲35대 ‘한결’ ▲36대 ‘EASY’ ▲37대 ‘BASE’와, 새롭게 출범한 ▲38대 ‘이음’이다. 이들의 총 공약 개수는 66개이며, 총학별로는 각각 20개, 8개, 12개, 14개, 12개의 공약이 구성돼 있었다. 공약은 ▲학사 ▲생활 및 복지 ▲소통 분야로 구분됐다.

학사 분야 공약이 전문한 총학은 한결이었다. 이외 총학은 각자의 공약을 내세웠다. 수업 관련 공약에는 EASY의 ▲강의의 질적 향상 ▲학과별 대면, 비대면 여부 사전 조사 ▲대면 수업 지각시간 기준 완화와 BASE의 ‘E-Class 배속 수강 허용’이 있다. 4개의 공약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나타난 공약이었다.

이는 등대의 ‘양질의 취업 특강 확충’과 이음의 ‘특강 활성화’가 특강 관련 사안 개선을 목표로 해 유사성을 지녔다.

총 9개의 학사 분야 공약 중 등대의 ‘강의평가 열람 기간 확대’와 ‘트랙제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학교생 수강권 문제 해결, 그리고 BASE의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 3면에 계속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남자화장실 구조 논란... “개선 검토하겠다”

최근 상상관, 탐구관 등 일부 남자화장실의 출입문 미설치와 소변기 간 가림막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는 남자화장실의 경우 복도에서 특정 각도로 바라보면 내부가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인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변기 간 가림막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송승민(인문 1) 학생은 “출입구와 가까운 소변기를 이용하면 밖에서 보일 수 있어 안쪽 소변기를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태영(인문 2) 학생은 “가림막 미설치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소변기에는 가림막이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그 이전에 건축된 본교 화장실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에 최태빈(사회과학 2) 학생은 “특정 각도에서 보이지 않게끔 출입문 설치가 필요하고 가림막 또한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의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도영(자산관리팀) 차장은 “오래된 건물은 내부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구조를 변경해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구관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불편 사항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상상관 화장실 출입문 설치와 소변기 간 가림막 역시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성욱 기자 sw911@hansung.ac.kr



▲기자가 상상관 2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 단선 뿐이었던 총선거, 모두 당선됐다

모든 출마자가 당선되면서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총선거는 후보자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유세 기간을 거쳤다. 14일과 15일에는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발표 ▲학내인문사의 질의와 응답 ▲정책토론회 참석자의 질의로 이뤄졌다. 후보자토론회는 단선으로 진행된 이번 총선거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23일과 24일에는 양일간 온·오프라인 투표가, 25일에는 개표가 실시됐다.

이번 총선거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이 단독으로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한편 ▲동아리 연합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다. 해당 단위는 내년 3월 중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제38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이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김승희(IT융합 3) 총학생회장 후보와 오주림(인문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3,242표(71.72%), 반대 1,129표(24.97%)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재적인원 6,384명 중 투표인원 4,520명으로 70.80%였다.

제39대 총대의원회 선거는 ‘청야의 정의

장 후보 광동민(사회과학 3)과 부의장 후보 권수민(인문 3)이 찬성 2,020표(74.07%), 반대 717표(25.92%)를 얻으며 당선됐다. 선거에는 대의원과 상임위원 재적인원 30명 중 27명(90.00%)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40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는 재적인원 6,384명 중 4519명(70.78%)이 투표해, 찬성 3,099표(68.58%), 반대 1,257표(27.82%)를 기록했다. 정위원장 후보 나현재(IT융합 3), 부위원장 후보 송채희(인문 2)가 뽑혔다.

제7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본 ‘구름’은 1,113명 재적인원 중 792명(71.16%)이 투표해 찬성 584표(73.74%), 반대 188표(23.74%)를 획득했다. 정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현우(인문 3), 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은송(인문 2)이 당선됐다.

제6대 디자인대학 학생회 선본 ‘MOTIVE’는 정학생회장 후보 김정재(ICT 3)와 부학생회장 후보 정형주(매선 2)가 출마해 당선됐다. 재적인원은 1,228명이며 투표인원 851명(69.30%) 중 찬성 682표(80.14%), 반대 154표(18.10%)를 받았다.

제25대 IT공과대학 선거 개표 결과 ‘늘찬’ 선본의 정학생회장 후보 김남혁(기계전자 2)과 부학생회장 후보 나은정(컴공 2)이 당선됐다. IT공과대학의 재적인원은 2,051명이며, 늘찬은 투표인원 1,482명(72.26%) 중 찬성 1,055표(71.19%), 반대 383표(25.84%)

를 득표했다.

한편, 총선거 기간 트랙·학과(부) 학생회 투표 또한 진행됐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에서는 ▲문학문화콘텐츠트랙 ▲한국어교육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의 트랙학생회장, 그리고 회화과의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는 법&정책트랙과 부동산자산관리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디자인대학은 ICT디자인학과와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IT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에서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확정됐다. 창의융합대학에서는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AI응용학과의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김산(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높은 투표율은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보여져 선거를 주관한 입장에서 만족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2023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 중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당선자를 만나봤다.

\*단위 : 총학생회 등의 중앙운영위원회와 단과대학, 트랙 학생회 등 선거가 진행되는 학생자치기구

>> 2면에 계속

장현진 기자 glenntavel1081@gmail.com

# 신규 중앙운영위원회 출범, 새해 향해 '박차'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제38대 총학생회 '이음'

### “학생과 대학본부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38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는 '이음' 선거운동본부의 김승희(IT융합 3), 오주림(인문 2) 후보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음은 공약을 ▲정보 ▲소통 ▲복지 ▲문화 분야로 구분해 총 12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음은 정보 분야에서 ▲단위별 총학생회비 사용액 안정화 ▲월별 총학생회 활동 보고 ▲편입생/복학생 대상 정보 제공 공약을 제시했다. '단위별 총학생회비 사용액 안정화'를 위해 각 단위가 인준 받는 총학생회비의 기본 배정 금액을 정하고, 단위별 총학생회비 납부자의 비율을 고려해 각 단체의 총학생회비 최대 금액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 모든 단위가 희망하는 금액을 전부 인준받기에는 총학생회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월별 총학생회 활동 보고'는 이음이 한 달 동안 진행한 활동을 정리해 총학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는 공약이다. '편입생/복학생 대상 정보 제공' 공약은 편입·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대면으로 전환하는 일을 골자로 한다.

이어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정기적 총학생회 간담회 실시 ▲오프라인 게시판 추가 설치 ▲학교 의류 디자인 공모전 실시/제작 공약을 통한 소통을 약속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는 연내 구축될 홈페이지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공약이다. '정기적 총학생회 간담회 실시'는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학 홈페이지에 '건의 게시판'을 만들고,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건의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간담회를 학생들과 진행한다. 이음은 '오프라인 게시판 추가 설치'도 약속했다. 현재 교내 홍보 게시물 부착 공간이 부족해 게시판이 아닌 공간에도 게시물이 부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놓았다. '학교 의류 디자인 공모전 실시/제작' 공약은 본교의 학생이라면 모두 입을 수 있는 단체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야구점퍼, 돗바 등 종류를 정한 이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해 학생들의 투표로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 공약은 ▲학교 주변 상권 제휴 ▲중고 책 장터 ▲예비군 버스 운행의 총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학교 주변 상권 제휴' 공약은 학교 주변의 상점과 제휴를 맺어, 학생들이 할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중고 책 장터' 공약은 예브리타임 장터게시판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도 중고 서적을 판매·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제시됐다. 총학에서 서적의 가격을 품질에 맞춰 책정하고, 판매된 이후 금액은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비군 버스 운행' 공약은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놓은 공약이다. 또한 올해 BASE가 진행된 것과 같이 외부 업체의 버스를 대절해 운행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는 '한성마라톤 실시'와 '특강 활성화' 공약이 있다.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마라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속감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참가비를 건어 본교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강 활성화' 공약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 당선자는 "특강이 활성화되지 않은 트랙도 특강이 개최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사 분야의 공약이 부재한 것에 대해 두 당선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대학본부와의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트랙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70.80%라는 높은 투표율은 학생들이 총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동안 꾸준히 소통하는 총학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진 : 박희진 기자

▲제38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김승희 총학생회장(좌)과 오주림 부총학생회장(우)

## 제39대 총대의원회 '청아'

### “청렴함을 위해 학우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제39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선거에서는 '청아' 선거운동본부의 광동민(사회과학 3), 권수민(인문 3) 후보가 각각 정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청아의 공약은 ▲다가가는 총대의원회 ▲대의원 홍보 강화 ▲개편된 학생회와의 소통 ▲공석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 마련 ▲감사 담당자의 만족도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감사의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 등이다.

'다가가는 총대의원회'는 총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청아는 학생자치기구 사업 탐방 콘텐츠인 '월간 청아'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권 당선자는 "월간 청아는 각 단위가 공약이나 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 홍보 강화'는 저조한 대의원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학생들이 대의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파악해, 대의원총회·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대의원 행사 결과를 SNS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광 당선자는 "대의원 학교나 대의원 간담회와 같은 활동도 존재한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대의원 지원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학생회와의 소통' 공약은 기존 학과(부)에서 트랙 학생회로 개편되며 발생할 수 있는 불만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된 단위의 학생회와의 간담회 개최가 세부 사항이다. 광 당선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 마련'은 학생회의 공석이 발생한 단위에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한 조항을 학생회칙에 신설하는 것이다. 청아가 가안으로 제작한 관련 조항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해당 자치기구의 업무 및 권한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관례적인 결정이 행해지는 것을 막고, 비대위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다. 광 당선자는 "비대위는 학생회에 비해 혜택은 없는 수준이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예산 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기에 학생회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등의 책임도 당연히 함께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담당자의 만족도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공약은 피감 사기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광 당선자는 "감사와 관련한 공지가 늦어지는 등의 불만 사항은 수용하겠지만, 학생회칙 중 감사 시행 세칙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려웠다'는 식의 불만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의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 공약은 감사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으로써 이행할 예정이다. 감사자료에 대한 기준은 학생회칙에 신설될 예정이며, 감사자료를 엄격히 관리해 학생들이 학생회비가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선거 기간 동안 권 당선자를 둘러싼 동아리 회비 감사 논란에 대해 그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진행되는 감사의 경우, 구두로 정해져 내려오는 감사 매뉴얼이 전부였다"며 "지난 몇 년간 당연히 존중돼 왔던 것들이 올해는 인정되지 않아 불만 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감사와 관련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 당선자는 "총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학우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학생들이 학교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 : 김기현 기자

▲제39대 총대의원회에 당선된 광동민 정의장(좌)과 권수민 부의장(우)

## 제40대 학생복지위원회 '채움'

### “대학생활의 부족함을 찾아 채우겠습니다”

제40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선거에는 '채움' 선거운동본부의 나현채(IT융합 3) 후보와 송재희(인문 2) 후보가 각각 정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채움은 ▲문화기행단 해외 추진 ▲무인반납함 설치 ▲학식당/노후시설 모니터링단 개설 ▲시험기간 학습공간 시간 연장을 공약으로, ▲자격증 업체 제휴 ▲추석 명절귀향 버스 부활 ▲공용 텀플릿 공모전 개최를 추진 예정 사업으로 내놓았다.

'문화기행단 해외 추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로 제한됐던 문화탐방 기행단의 목적지를 해외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이다. 나 당선자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대학본부와 여행사 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해, 실현 가능성 있는 목적지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목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인반납함 설치'는 학복위의 상주 마감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학생들이 보조배터리를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반납함을 설치한다는 공약이다. 도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송 당선자는 "GPS 추적기와 자물쇠를 설치해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식당/노후시설 모니터링단 개설' 공약은 학생식당에 대한 불만 사항이 학내 커뮤니티 예브리타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고 제시한 공약이다. 학생 중에서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본부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교내 노후시설이나 고장시설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험기간 학습공간 시간 연장'은 시험 기간 중 야간 시간대에 상상베이스, 창의열람실 등 교내 학습공간이 폐쇄되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파크의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에 학복위가 자정까지 상주함으로써 해소할 예정이다.

추진 예정 사업 세 가지는 외부 업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자격증 업체 제휴'는 자격증이나 시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휴 사업이다. 주로 혜택을 입을 학생이 일부 단과대학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토의 학원과 운전면허학원과의 제휴 논의를 고려 중에 있다.

'추석 명절귀향버스 부활'은 학복위에서 꾸준히 진행됐던 명절 귀향버스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공약이다. 이 정책은 서울동부지구 학생복지위원회연합(이하 동부연합) 차원에서 운영하던 사업이나, 최근 동부연합의 활동이 위축돼 추진할 수 없었다. 다만 채움은 올해도 동부연합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총학생회비를 인준 받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외부 업체로부터 버스를 대절해 운행할 방침이다. 나 당선자는 "경유지인 대전을 행선지로 정해 운영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전했다.

'공용 텀플릿 공모전 개최'는 공모전을 통해 본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파워포인트 텀플릿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공모전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하나의 최종 텀플릿을 선발할 계획이며, 모든 학생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저작권자는 학교로 설정된다.

한편 채움은 총학이 복지 업무에 집중할수록, 학복위는 필요불가결한 기구임을 역설했다. 나 당선자는 "총학은 학사, 교육 등의 분야와 함께 복지에도 신경을 쓰는 반면에, 학복위는 오로지 복지만을 역점에 두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송 당선자 역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려면 복지 업무가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당선자는 "대면으로 전환되는 국면인 만큼 대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중점에 두려 한다"며 다짐했다.



사진 : 박희진 기자

▲제40대 학생복지위원회에 당선된 나현채 정위원장(좌)과 송재희 부위원장(우)

# ‘BASE’ 총학생회 ‘기본’ 지켰나

본지는 2022년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공약 및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37대 총학 BASE 학생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구글폼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재학생 200명, 휴학생 1명, 수료생 1명, 졸업생 1명, 총 203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학 활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먼저 '귀하는 제37대 총학생회 BASE의 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48.7%에 달했다. '보통(39.9%)', '불만족(5.4%)', '매우 불만족(5.9%)'이 그 뒤를 이었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하는 이유를 묻자 '총학생회에서 기획한 행사가 유익했다(49.5%)'가 가장 우세했다. 또한 '공약을 잘 이행했다(34.3%)'와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했다(34.3%)'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65.2%)'가 가장 많았으며, '공약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56.5%)'와 '총학생회의 사업으로 누린 혜택이 적었다(56.5%)'는 응답이 이어졌다.

불만족한 이유와 대비되는 지점은 총학의 소통 분야 공약에 대해 '매우 만족(13.3%)', '만족(31.5%)' 응답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다양한 SNS를 활용해 일반 학우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는 사유가 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해당 질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12.3%였다. '공약 이외에도 총학생회 BASE가 학생들과 잘 소통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14.8%)', '그렇다(31%)'라고 학생들은 응답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은 13.3%를 차지했다. 총학의 소통 분야 공약은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총학생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이다. 총학생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은 이행 완료한 상태이며,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와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공약은 이행 중인 상황이다.

BASE는 복지 분야 공약도 내세웠는데, ▲만족스러운 학식당 이용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이 그것이다. '만족스러운 학식당 이용'은

이행 완료됐으며,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는 이행 중,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은 이행 불가한 상태다. 이행 불가인 공약에 대해 처음 공약을 내세울 때 총학은 이행 가능성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제37대 총학생회 BASE의 복지 분야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의에 긍정적인 응답은 48.8%, '보통'은 36%였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불만족'은 8.9%, '매우 불만족'은 6.4%를 기록했다. 만족하는 학생은 학식당 환경 개선을 이유로, 불만족하는 학생들은 학식당 관리 미흡을 이유로 꼽으며 학식당에 대한 견해가 대비를 이뤘다. 한편, 공약 이외에 총학에서 학생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53.7%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14.3%에 불과했다.

총학의 제후 및 취업 분야 공약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후 업체 선정'과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였다. 전자 는 이행 완료됐으며, 후자는 이행 중이다. 제후 및 취업 분야 공약 만족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45.8%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보통(44.3%)', '불만족(4.4%)', '매우 불만족(5.4%)'이었다. '공약 이외에도 총학생회 BASE가 보다 나은 제후 및 취업 분야를 위해 힘썼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도 45.4%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택했다. 이어 '보통(45.3%)', '그렇지 않다(3.4%)', '전혀 그렇지 않다(5.9%)'가 기록됐다.

제37대 총학생회 BASE의 장학금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에는 '매우 만족(15.8%)', '만족(30.5%)', '보통(40.9%)', '불만족(7.4%)', '매우 불만족(5.4%)'의 답변이 이뤄졌다. 총학은 장학금 분야 공약으로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공지 및 고지', '교육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를 내세웠다.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공지 및 고지' 공약은 이행이 완료됐으며, '교육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는 이행 중이다. '공약 이외에도 총학생회 BASE가 보다 나은 장학금 제도를 위해 힘썼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15.3%)', '그렇다(27.1%)', '보통이다(45.8%)', '그렇지 않다(7.4%)', '전혀 그렇지 않다(4.4%)'가 기록됐다.

총학의 교육 분야 공약에 관해 41.4%의 학생들은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세부적인

소통	복지	제후 및 취업
○ 총학생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 만족스러운 학식당 이용	○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후 업체 선정
△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	△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
△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장학금	교육	문화
○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공지 및 고지	×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	○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 교육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 E-Class 배속 수강 조건부 허용	○ 사라진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 다양화

\*11월 16일 기준

답변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BASE의 교육 분야 공약에는 '매우 만족(14.8%)', '만족(26.6%)', '보통(42.9%)', '불만족(7.4%)', '매우 불만족(8.4%)'의 답변이 존재했다. 불만족을 택한 학우들의 답변이 구체적이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그중 하나였다. 공약 이외 교육 분야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총학의 노력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견해와 공약 이행 불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한편, BASE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는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과 'E-Class 배속 수강 조건부 허용'이 있었으며, 두 공약 모두 이행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공약 이외에도 총학생회 BASE가 보다 나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힘썼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14.3%)', '그렇다(23.6%)', '보통(46.3%)', '그렇지 않다(7.4%)', '전혀 그렇지 않다(8.4%)' 응답이 남겨졌다.

총학 BASE는 문화 분야 공약으로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과 '사라진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 다양화'를 내세웠으며, 모두 이행 완료했다. 제37대 총학생회 BASE의 문화 분야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 역시 과반수의 학생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만족하는 학생은 '행사의 다양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불만족(3%)', '매우 불만족(6.4%)'이 기록됐는데, 사유에는 '휴먼구역 외 휴먼'과 '학교 환경 청

결도'가 존재했다. 더불어 52.2%의 학우들은 총학이 학생을 위해 공약 이외의 문화 분야에서 노력했다고 답했다.

'차기 총학생회인 제38대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의에는 '공약 이행 준수'에 대한 학생들의 강한 바람이 드러났으며, 학생대표기구에 대한 '강한 책임감' 역시 다수 언급됐다.

지승민(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더 좋은 모습의 총학을 보여드렸어야 했으나 1년이 빠르게 지나가 많이 아쉽다"며 "그럼에도 긍정적 평가를 보내주시는 학우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장현진 기자 glenntravel1081@gmail.com

## 계승인가, 정체인가... 반복되는 총학생회 '왕조의 역사'

생활 및 복지 분야는 총 38개의 공약이 구성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우선, 정보 제공 관련 공약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에 걸친 모든 총학은 각기 다른 내용을 공유할 뿐 공약 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더불어, 제공하는 정보 역시 총학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전달자만의 역할에 그쳤다. 한결의 비교과와 장학금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총학 달력', EASY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속기록 공유' 및 '재개발 공사 계획 주기적 공지', 그리고 BASE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와 이음의 '편입생과 복학생 대상 정보 제공'이 해당 공약들이다.

등대의 '시험 기간 상상관 지하 2층 및 세미나실 24시간 개방'과 한결의 '시험 기간 상상관 지하 2층 개방 기간 연장'은 모두 시험 기간에 학내의 공간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등대의 '근로비 지급일 확정 공지'와 BASE의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공지 및 고지', '교육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의 공약이 구성돼 있었다. 세 공약 모두 교내 장학금의 편익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흡사했다.

한편 학업 보조 관련 공약에는 한결의 '수강 신청 매뉴얼 매 학기 갱신'과 BASE

의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그리고 이음의 '중고 책 장터'가 존재했다.

시설 및 설비 관련 공약에는 등대의 ▲미래관 열람실 무인 프린트기 설치 ▲셔틀버스 노선 증편 및 운행 시간 확대 ▲휴먼 부스 확대 설치 ▲남학생 휴게실 확보 ▲재학생의 주차장 이용 금액 인하 ▲한성대학교 관련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 ▲냉난방 시설 사용 규제 완화가 있었다. 더불어 EASY의 '정문 외 출입구 증가',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그리고 BASE의 '만족스러운 학식당 이용',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공약으로 이뤄졌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지점이 산재한다. 특히 지난 2011년에 총학이었던 27대 '드림하이' 역시 공약으로 '한성대 스킨버스 시간표 배치, 운행시간 조정'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아 스킨버스를 둘러싼 논란은 다년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사 관련 공약으로는 한결이 만우절 등에 진행하는 '간단한 이벤트성 축제 다양화'와 BASE의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배경으로 한 '사라진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 다양화', 그리고 이음의 '한성마라톤 실시'가 존재했다. 다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사라진 대학생들을 위해 행사를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은 총학 차원 이전에 거의 모든 대학본부 차원에서 행해졌다.

제후 관련 공약은 최근 2대의 총학이 가져온 분야다. BASE의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후 업체 선정'과 이음의 '학교 주변 상권 제후'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후를 체결한다는 지점에서 대동소이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학생복지위원회 '도란'은 당시 복지 관련 공약으로 '학교 주변 편의시설 제후 확대'를 내걸은 바 있다.

규율과 관련된 공약은 등대의 '도서관의 분실, 도난 도서 확충'과 한결의 '분실물 신고 및 관리 체계화', EASY의 '재개발 구역 안전 순찰'로 구성됐다. 3가지 공약 모두 안전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흡사했다.

학생회 개편 관련 사안도 공약으로 존재했다. 등대의 '1학년들의 과, 트랙장 선거권 보장' 공약과 EASY의 '학생회 운영 방식 체계 개선', 그리고 이음의 '단위별 총학생회비 사용액 안정화'가 그것이다.

이음의 '예비군 버스 운행'은 최근 5대의 총학 공약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BASE가 공약 외적으로 추진

한 2022년도 예비군 버스 운행을 계승한 것이다. 더불어 10개년 예비군 버스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총학이, 2015년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학생복지위원회가 꾸준히 주도했다. 다만 뒤이은 2020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19를 사유로 진행되지 않아 BASE가 긴급히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전 역시 총학이 주도했던 전례가 다수 존재해 해당 사업은 총학과 학부위의 핑퐁게임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등대에 '동아리 지원 확대'는 위의 공약들과 범주화되지 않았다.

소통 분야 역시 총학 공약의 단골소재였다. 소통 창구 마련과 관련한 공약은 5대에 걸친 총학 모두 제시했다. 등대의 ▲정기 간담회 개최 및 비교과 포인트 지급 ▲정기적인 총학생회 소통 부스 운영 ▲정책공모전, 한결의 ▲SNS를 통한 학우들의 직접적인 건의 사항 전달 ▲정기 간담회 대신 매달 공약과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 공개 ▲주기적인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부스 운영, EASY의 '한성청원 개설' 및 '새로운 소통창구 개설'이 존재했다. 이어 BASE의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과 '총학생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그리고 이음의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정기적 총학생회 간담회 실시 ▲오프라인 게시판 추가 설치까지가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공약이다. 이음의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의 경우 BASE가 진행하던 사업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모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내놓은 공약으로, 총학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총학 'H 다이어리'의 공약인 '24시간 만나는 on-line 학생회'는 총학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BASE와 이음의 공약과 결을 같이 한다. 다만, BASE의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는 실명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소통 창구와 달리 익명성을 담았다는 차이를 보였다.

활동 내용 공개에 해당하는 공약은 등대의 'SNS를 통한 교내 이슈 대응 및 활동 내역 공개'와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EASY의 '학생회 회의내용 주기적 공지', 그리고 이음의 '월별 총학생회 활동 보고'이다. 4가지 공약 모두 총학에서 진행하는 활동 등을 공개하겠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의 소통 관련 분야 공약은 이음의 '학교 의류 디자인 공모전 실시 및 제작'뿐이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방치되는 불법 방 쪼개기에 남루한 청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적으로 방을 쪼개 일명 방 쪼개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방 쪼개기란 용어 그대로 주택 내부에 벽을 세워 방을 나누는 행위를 통칭한다. 이공희(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 교수는 “방 쪼개기는 과거 다가구주택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방으로 전환돼 쓰였던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 쪼개기는 주로 임대인이 거주 공간을 늘려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40㎡ 분리형 원룸의 월세가 140만 원이라고 할 때, 10㎡짜리 4개로 나누 50만 원의 월세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임대인은 매달 60만 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적지 않은 임대인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 쪼개기를 단행하는 이유다. 김영재(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방 쪼개기는 임대인이 정해진 공간에서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대학이나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 주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적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방 쪼개기는 용도변경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신고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뻔히 합법적인 경로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은 14㎡로 약 4.24평이다. 하지만 방 쪼개기의 경우는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역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요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승인되기가 어렵다.

지난 10월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부터 받은 「전국 불법 방 쪼개기(다세대, 다가구주택)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위반 건축물 현황은 총 5,090동이지만, 시정 및 철거된 주택은 2,348동에 불과했다. 사실상 절반이 방치되는 셈이다. 더욱이 청년층이 주된 표적이란 점이 문제다. 지난 2019년 한국부동산분석협회가 발행한 「서울시 세대별 1인 가구의 주거 특성 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층 주거 형태는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주택 유형은 지자체 차원의 단속이 쉽지 않아 방 쪼개기의 먹잇감으로 여겨진다. 서원석(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피해자가 대부분 청년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이다. 아파트나 고급주택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인호(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불법 건물임을 알면서도 입주하는 청년도 증가했다. 경제력이 약한 청년에게 저렴한 집세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자들은 공과금도 나눠서 내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 자체가 입주자 스스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최 교수는 “불법 건물이라는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다. 하지만 저렴한 주거 비용에 흑해 불법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주택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해 문제로 대두된다. 편법을 통해 무리하게 방을 나누는 경우, 탈출 통로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심지어는 화재 발생 시에 이용할 소방 및 환기시설이 부족해 임차인들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값이 저렴하고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벽을 설치하기 위해 내화가 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점도 문제다. 화재 시 피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서진형(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방을 분리해 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 환경이 악화되는 일이 야기된다. 건축 허가를 통해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쪼개 방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언한다. 불법적으로 개조된 방은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김 초빙교수는 “불법적으로 쪼개진 방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청년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만 징수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행강제금보다 임대 수익이 더 높다는 현실이다. 때문에 임대인 대부분은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 건축자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실제로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해 받은 「전국 불법 방 쪼개기(다세대,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1.1%였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21년 66.4%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교수는 “불법적인 건축물이 발견되면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차적으로는 불법적인 건축의 부분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용동(한국주거서비스사이어) 공동상임대표는 “이행강제금을 증액시켜 강하게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지난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위반건축물 감독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방 쪼개기를 해결하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관리해야

할 건물에 비해 감독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건축물 내부에서 일어나기에 일일이 확인하기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진형 교수는 “방 쪼개기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학자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전언했다. 장 대표는 “위반건축물 감독관의 수를 늘리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하다. 원천적으로 해당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철거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강압적인 대책으로 방 쪼개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한다. 철거 과정에 큰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김 초빙교수는 “강제 철거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후해 강제 철거가 시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계약하기 전, 임차인이 건축물의 설계도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 쪼개기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중개 거래가 가능한 최소 면적의 기준을 정해 기존 이하의 면적은 거래가 일절 불가하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초빙교수는 “대부분의 임차인은 설계도와 등기부등본을 살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전국 지역마다 지부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서진형 교수는 “설계도는 구경에서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서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설계도와 실제 건물을 비교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루빨리 임차인이 설계도와 건물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청년의 방 쪼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최 교수는 “부동산 피해가 청년에게 겨냥된 이유는 청년 입장에서 저렴한 주거는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거 환경이 양호하면서도 저렴한 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방 쪼개기 문제에 있어 적절한 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 :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보여주기식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선 시급

지속되는 고용시장 침체는 많은 청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양말’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구직을 단념해 버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직활동을 쉬었다’고 답한 청년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3만 명이었으나, 2022년 9월 기준 약 39만 명으로 18%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구직단념청년이나 청소년취업 입·퇴소청년 등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참여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올해까지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에게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1개월당 프로그램 수당을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개월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적으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확대가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목표 참여 인원에 비해 실제 신청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지원사업의 목표 인원은 5,000명이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약 3,200명이었으며, 1/4 가량이

미달된 상황이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단념청년이 4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5천 명의 목표 인원조차 채우지 못한 실정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여타 국가사업처럼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은 구직단념청년, 즉 니트\*족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에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 필요성이 다소 적다고 여겨지는 주부나 대학 휴학생까지 모집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단순 실적 부풀리기 성격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금이나 기프트콘을 주는 방식으로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 기관도 있었다. 일례로 천안청년센터(이음)에서는 지인을 추천하면 추천인과 참가자 모두에게 차킨을, 참가자에게 10만 원을 주는 이벤트가 시행됐다.

실효성 자체에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수’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1~2개월의 단기 교육으로만 이뤄져 있다. 이는 니트족의 떨어진 자신감이나 구직 능력을 회복하기에 교육 기간이 짧고, 제대로 된 성과 없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임은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요리학원에 가도 2달 만에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단기 프로그램은 니트

족의 구직 능력을 되살리기엔 기간이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니트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들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니트족의 절반가량은 우울감이나 무력감 및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노동 경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어떠한 이유로 구직을 단념하고 니트족이 됐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지원사업과 같은 교육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는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기관이 많아 본 목적과 관계없이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 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프로그램 시행 숫자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실적 압박에 떠밀려 부적절한 대상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는 체계다.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실적을 높이는 요인이 강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결국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능력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이 도출된다. 단발성 행사로는 그때그때의 실적에 휘둘리기 쉽고,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작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단순 지원율만을 올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니트족들이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구직 의지를 충분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목적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니트족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 형성 및 경력 관계 형성 등 내적 요소”라며 “단순한 프로그램 이수가 아닌 더욱 집중적으로 밀착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은 청년

송성욱 기자 sw911@hansung.ac.kr

# 비행 청년

- 비행(飛行)할 그날을 위해 -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청춘'. 안타깝지만 모든 청년이 그 말의 의미대로 젊음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소외 청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외된 청년의 문제를 과연 개인의 문제, 비행(非行)으로만 다뤄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조명해야 할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소외 청년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飛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 속 소외된 청년들이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알아보자.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대학 아닌 대학? 전문대에 다닌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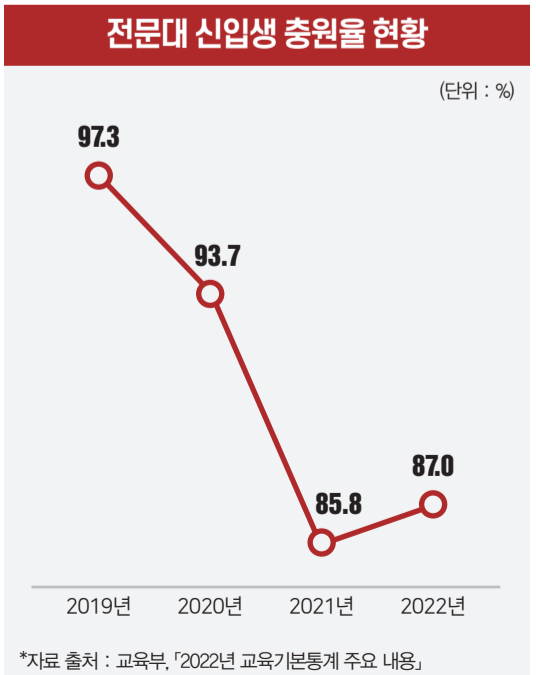
실용적인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이하 전문대)'이라 정의한다. 『고등교육법』 제 47조에 따르면, 전문대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남성희(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 교육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며, "재직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직무역량을 제고시키고, 실업자와 경력 단절자 등 성인 학습자에 대한 고등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대 이전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실업고등전문학교, 1970년 전문학교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설치된 초급대학 등이 존재했다. 이후 정부가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 모두를 전문대로 일원화하면서 1979년 현재의 전문대 체제가 수립됐다. 한때는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들어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교육 목적으로 변화해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성오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는 급변하는 산업 흐름과 직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신규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대에서 이뤄지는 '직업교육'은 직업인으로서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직업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맡은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이론보다는 현장과 연결된 실습에 중점을 둔다는 특성이 있으며, 학생들은 이른바 '4년제 대학'으로 불리는 일반대학(이하 일반대)보다 짧은 수업연한을 통해 전공지식을 쌓는다. 공병호(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전문대는 현장 즉응적인 기술 및 실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운다"며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이 취업의 길로 들어선다"고 설명했다.

전문대 졸업자는 비교적 빠르게 취업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교육 이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먼저 학생들은 '취업'이라는 전문대의 목적에 맞게 관련 교육을 마치고 빠르게 입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대 졸업 후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유턴입학' 지원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유턴입학 지원자는 2013년 4,800명에서 2021년 14,215명으로 증가했다. 혹은 심화교육을 위해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및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박동열(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일반대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처럼 전문대에서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학위 취득 과정은 논문 대신 특허 등 기술적인 학습 부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대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6% 이상을 유지하던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2년 87.0%로 감소했다. 특히 전문대 간 지역 격차도 발생해 지방 전문대는 더 큰 신입생 미달률을 보이기도 했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맞물려 지역 간 격차까지 심화되면서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가 신입생 충원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 교수는 "대부분 학생이 동기 유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반대가 전문대보다 선택의 순위 우위에 있어, 전문대는 일반대 다음으로 신입생이 충원된다"고 해석했다.

전문대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전문대와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문대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의 실제 능력보다는 학벌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의 인식이 밑바탕이 돼 전문대가 일반대의 하위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현재 입시 과정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전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반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대는 법에 명시돼 있듯이 일반대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설립 목적이 다른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대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대와 일반대의 경계가 열려졌다는 견해도 우세하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학문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반대마저 사실상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면서, 같은 목적의 전문대보다 비교우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대와 일반대가 서로 중복된 학과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인사이드리포트 2호」에 따르면, 2021년 114개 일반대학(원)의 520개 학과가 전문대에서 최초 개설된 학과로 드러났다. 공 교수는 "학문 연구의 많은 부분이 대학원으로 이양되면서 일반대에서도 학부 과정에서는 직업교육을 한다. 일반대가 전문대의 기능을 많은 부분 흡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와 일반대가 각각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동질화돼 가는 상황에서 일반대를 우선하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어려워지는 일반대도 발생하고 전문대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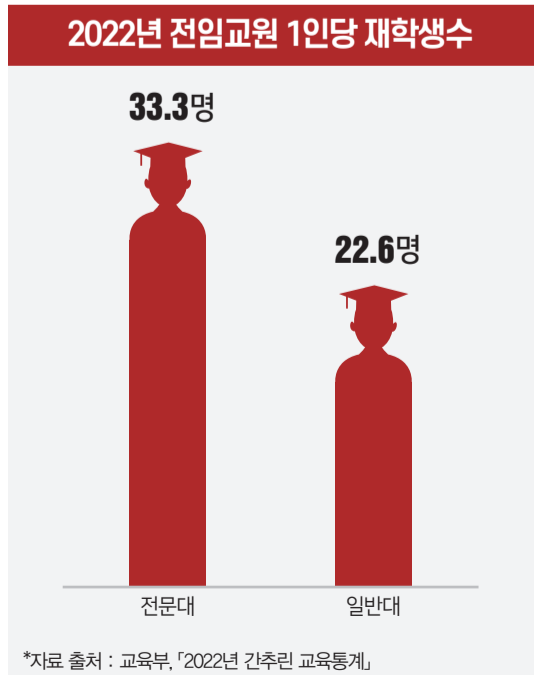
현재 전문대 관계자들은 일반대와 재정지원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202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에 따르면,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원사업비의 경우 2020년 기술·일반·전문대 사업비의 9.7% 수준인 약 5,707억 원만 전문대에 배정됐다. 즉 전체 중 90%의 사업비가 일반대에 편중된 것이다. 기술대학 등을 제외한 전체 대학 재정·재학생 중 전문대가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성 회장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신입생이 감소하고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전문대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며, "전문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정부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 전문대에겐 향하는 재정지원은 심한 불균형이고 기술어린 운

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의 악화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돼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우수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투자할 돈이 부족해지고 이는 전문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간추린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문대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는 33.3명으로 일반대의 22.6명보다 높았다. 또한 「2022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도 2021년 교육 및 일반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약 1,708만 원이었으나, 전문대는 약 1,118만 원으로 적은 수치였다. 이정표(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재정지원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저급 인력이 생산된다. 저급 인력이 노동시장에 나가면 그들이 가지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사회·경제적 차별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전문대 진학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역설했다. 공 교수는 "등록금을 대신하는 국가장학금은 인건비로 대부분 흡수되는데 등록금은 동결돼 있다. 전문대의 원래 설립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문대의 수업연한이 고정되면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대의 수업연한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간호학과를 제외하면, 학제가 2-3년으로 고정돼 있다. 이는 실제 산업구조에 맞는 학사 형태가 아닌 학교에 의한 수업연한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 교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유형에 따라 학과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연한의 유연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대를 향한 사회적 낙인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은 전문대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이는 전문대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지는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취업 시장에서 소외된 '초대졸'로 통용된다. 심지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도 한다.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모든 전문대 졸업자를 일률적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로 보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전문대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전문대 재학생들이 일반대로 다시 진학하고자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술했다.

전문대들은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 여건의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상섭(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자문위원은 "전문대도 고등교육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기에 정부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 대학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가 큰 일반대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전문대가 살려면 지방 정부와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수업연한의 다양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고정된 수업연한으로 변화무쌍한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수업연한 다양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일반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남 회장은 "수업연한 다양화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과제다. 핵심은 2:3년제로 운영되는 수업연한을 1년 미만 단기과정부터 4년까지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 회장은 "수업연한의 획일적 통일 은 역치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술 또는 자격증의 품질인증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무엇을 얼마 동안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학습자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대들은 직업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직업교육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법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고등교육기관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전문대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학교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법』이 따로 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기본법』 제21조, 직업교육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교육 기본법을 제정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단지 전문대의 부흥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권리인 직업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직업교육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대는 직업교육이라는 역할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성 회장은 "집을 짓는데 '대들보'도 필요하지만, '서까래'도 필요하다. 전문대가 없다면 중소·중견기업은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졸업생의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99%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 경제발전엔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리 자문위원은 "일반대와 전문대는 경쟁이 아닌 공생의 관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구조에 따라 전문대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이 있고, 일반대를 넘어 석사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 있다. 전문대는 서구의 전문대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문대를 향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도 사라져야 함이 강조된다. 성 회장은 "전문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이들이 절대 아니다"라며, "유럽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직업학교를 선택하고 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간다. 학업 능력 대신 개인의 관심사나 다른 능력을 알아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전문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늘 일반대 중심의 정책 사업과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문대는 차별받고 있다"며, "전문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행복할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그들의 역량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제37회 한성문학상



## 소설 부문

수 상 | 김남수(인문 3)  
 심 사 | 김동환(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삽 화 | 김소형(CT 1)



## 시 부문

수 상 | 김도경(인문 2)  
 심 사 | 강호정(문학문화콘텐츠학과, 시인) 교수  
 삽 화 | 김한나(패션 3)



### 소설 부문 수상소감

군대에서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사회로 나갈 수 없다는 답답함이 소설 쓰기에 힘을 실어 주었다. 평소 문학을 좋아했지만, 그 마음은 독자로서의 경계선 안에 머물렀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문근하게 차오른다. 때마침 국방부에서 간부와 용사를 대상으로 병영문학상을 개최한다는 포스터를 접할 수 있었고, 첫사랑에게 용기를 내 투박한 손편지를 적는 중학생의 순수함처럼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고된 과업을 수행하고 모두가 달콤한 꿈을 유영하기 시작한 늦은 저녁, 매일매일 연등 신청을 해 두 시간 남짓한 작고 소중한 시간을 꼭꼭 글자로 눌러 담았다. 겉으로 보기에 적합한 글쓰기는 한결음 깊게 다가가면 어느 스포츠 못지않게 격렬한 행위였다.

하지만 마음을 다 담아내기 전에 기한이 지나 버렸다.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보여주지 않겠다는 고집이 문제였다. 아쉬움을 꿀꺽 삼켜냈지만 되새김질하듯 그 마음은 자꾸자꾸 올라왔다. 작은 불씨만 있어도 깨어날 마음은 이번 한성문학상을 반가로이 만날 수 있었다.

오래 구겨 놓은 소설을 다시 펼쳐내 예쁘게 다듬어 세상에 내보일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좋아하는 이에게 받은 작은 인사로 하루가 말갛게 채색된 기분도 들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아픔을 소설이라는 거짓의 형태로 속여 독자에게 공개하는 소설의 매력이 계속해 소설을 쓰게 만든다. 앞으로도 소설의 너른 품에 안겨 한껏 응석 부리며, 실컷 투정 부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김남수(인문 3)



### 시 부문 수상소감

식탁 위에 며칠이나 놓여 있던 바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까지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이대로 더 놔두면 너무 물러지고 썩어서 버려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은 아무도 그 바나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이미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 돼버려서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기에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아서 그대로 또 며칠 동안이나 누군가 대신 그 바나나를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고만 있었습니다.

공모전에 제출할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때 그 식탁 위의 바나나였습니다. 문득 그 바나나처럼 내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동안 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기가 되어 쓰게 된 시였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쉽게 늘어지고 포기한 적이 많아서 무언가 하나를 잡고 끝까지 해본 경험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글을 써서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기뻐는데 당선까지 되어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더 많이 열심히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롭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함께 준비하며 많은 도움 주고받은 이무기 부원분들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치 않고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경(인문 2)



### 소설 부문 당선작

## 월세구하기

김남수

이른 아침 햇빛들이 동네 구석구석 한자리씩 차지한다. 그런데 뻑뻑이 메워진 빛이 닿지 않는 곳에 편의점이 텅그러나 놓여 있다. 맞은편 아파트가 암막 커튼처럼 빛을 막아주고 있다. 허름한 상가에 홀로 번쩍번쩍 간판 불빛을 자랑한다. 편의점과 상가 건물은 마치 봉제 인형과 로봇을 억지로 합체시켜 만든 듯한 괴상함을 자랑했다.

그 편의점에서 표정을 잃어버린 얼굴로 의자에 기대 아침 근무자를 기다리고 있는 강희가 있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후드티를 입고 오른손에는 봉대를 칭칭 감고 있다. 편의점에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남성은 곧바로 카운터 앞에 서서 담배를 찾았다. 강희는 담배를 꺼내 계산대 앞에 내려놓는데, 중년 남성은 카드를 손에 쥘 채 멈춰있었다. 한참이나 멈춰있는 손이 이상하여 손님을 쳐다본 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중년 남성은 강희의 험렁한 옷 때문에 슬쩍 보이는 가슴골을 간접히 훑쳐보고 있었다. 열은 한숨을 내뿜으며 강희는 힘 풀린 눈으로 티셔츠에 손가락을 걸고 목 부분을 훑 내려버렸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브래지어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슴 덩이에 놀란 중년 남성은 순간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듯 편의점을 뛰쳐나갔다. 강희는 무력감을 꿀꺽 집어삼키며 쫘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중년 남성을 무심히 쳐다보았다.

곧이어 도착한 오전 근무자와 검박한 인사를 나누고 편의점을 나왔다. 편의점에서 나온 강희는 이어폰을 끼고 주변 세상과 절교한다. 이른 아침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출근한다. 강희는 요즘 회사들은 캐주얼한 복장으로 많이 일하니까 후줄근한 후드집업에 운동복 바지인 자신도 회사원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를 비웃듯 피식 웃음을 뱉었다.

27분을 걸은 뒤 집 앞에 다다랐다. 계단을 오르며 옥탑방으로 향한다. 밤을 새우고 난 뒤라 온몸에 힘이 빠진 강희는 계단 한 칸 한 칸의 경사가 더욱 가파르게 느끼고 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 하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강희의 어깨를 붙잡아 돌리며 소리쳤다.

“강희 학생!”

갑작스레 뒤도는 바람에 이어폰이 바닥에 나뒹굴러졌다. 멍한 상태에 빠져있던 강희는 아줌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마치 얇은 바늘이 쭈욱 하고 들어오는 듯 아파했다. 강희 앞에는 풍채 좋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단단히 서 있다.

“얼굴 보기 힘드네 잘 지냈고?”

“네... 뭐”

“다름이 아니고 월세 말이야.. 많이 밀린 거 알지? 생활비 때문에 보증금도 빼갔잖아” 주인집 아주머니는 강희의 말을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백십팔만원이야 밀린 월세..이거 사흘 안으로 갚아줬으면 해”

“..사흘이요?” 강희는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사실 강희 학생이랑 계약도 며칠 뒤면 끝나잖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월세 밀리면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재계약은 어렵지” 주인집 아주머니는 단호했다.

“그래서 이번에 강희 학생이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흘 안으로 밀린 돈 다 갚아줘 그러면 우리도 재계약할 테니까”

주인집 아주머니는 자신의 말만 내댈지고 내려갔다. 강희는 집에 들어가 지 못하고 옥상에 우두커니 남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이어폰에는 도시의 세련됨을 찬미하는 시터팝 음악이 가열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

대학을 입학한 강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르바이트였다. 부모님의

그들은 강희에게 드리워진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비명을 지르듯 아버지를 쏘아붙였고, 그는 무력함으로 일관했다. 강희는 집에서조차 이어폰으로 귀에 소리를 가득 채워 넣어 잠을 청해야만 했다. 괴로움이 권태가 되어 갈 때쯤 집을 나와 연락을 끊었다. 부족한 환경은 노력으로 메우기 위해 노력했고 우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한 번 터져 나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꼭 눌러 담았다.

그날은 유독 피곤함을 느꼈다. 4학년 2학기에 접어든 강희는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늘 그렇듯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마치 한숨을 불어넣으면 터질 듯한 풍선 같았다. 숯불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강희는 가게 뒤편 숯불 좌각기 앞에 쪼그려 앉아 숯불을 꺼내고 있었다. 숯불의 온기는 강희를 노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희는 집에서 숯불을 놓쳐 바닥에 자주 구르게 했다. 그러다 손님 테이블로 숯불을 교체하러 가기 위해 쪼그려 앉은 다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는데 느슨해졌던 목은 다리까지 힘을 잃지 못했다. 순간 강희는 엉덩방아를 찧고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숯불에 손을 푹 담갔다. 타들어 가는 오른손의 고통이 이 순간을 생생히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 고통은 며칠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날 이후로 강희는 꽤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수입은 끊기고 병원비는 줄줄 새서 통장 잔고를 바짝 마르게 했다. 월세가 밀리게 된 것도 이 시점부터였다. 화상은 강희의 손뿐만 아니라 중간고사에 쏟은 모든 노력을 불태웠다. 중간고사 마지막 날 경영대에서 중간고사 종강 기념으로 술자리를 마련했다. 강희는 이 무력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덮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오후에 시작한 술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중간고사 스트레스를 푸는 대학생들은 활기차고 여기저기 목청이 터져라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강희의 테이블은 알박기를 하는 듯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바쁘게 사는 탓에 동기, 후배들과 안면이 없었던 강희는 혼자 술로 시간을 채우며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몇 번의 반복 끝에 시간은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강희의 맞은편에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성훈으로 강희의 2년 후배였다. 성훈은 강희에게 들어서 마시자고 추천했다. 하지만 강희는 모든 게 지루했고 지루하다는 게 지겨웠다. 늦어진 시간이 귀가를 상기하도록 부추겼고 강희는 혼자 술집에 온 것처럼 가게 밖을 나섰다. 뒤이어 성훈도 가게를 따라 나왔다. 강희는 비틀거리며 걷고, 성훈은 뒤를 따랐다. 그날 거리는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아 있었다. 거리에는 남녀들이 서로 몸에 걸친 것들과 목매를 자랑하는 옷을 전시하고 있었다. 강희에게 그 광경은 새벽 수산시장의 경매장처럼 하룻밤을 경매 상품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보였다. 뒤를 바짝 따라오던 성훈을 보며, 남들이 볼 때 자신과 성훈도 그렇게 보일까 생각했다. 하룻밤이 간절하면서도 품위는 지키려는 모습들이 우스웠다. 앞장서 가던 강희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성훈은 물었다.

“왜 웃어?” 강희는 뒤돌아 성훈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주위를 한 번 꼭 봐봐! 웃기지 않아? 다들 품 잡고 비싼 척들 하는데, 다 섹스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잖아 웃게!”

술에 취한 강희는 봉대를 한 손으로 성훈을 탁탁 치며 웃었다. 성훈은 그런 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재미있으면... 우리도 할까?”

성훈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강희를 쳐다보았다. 심히 솔직한 성훈에게 불량한 내용새가 풍겼다. 강희는 순간 오른팔이 따끔거리 손을 올려 봉대 속 더럽게 흥진 팔을 꿰뚫어 보았다. 얼마간 멍하니 다친 손을 들어

다보다 심상하게 대답했다.

“... 그래”

성훈은 놀라 다시 물었다.

“어? 진짜?! 진짜로? 좋다는 거지?”

흥분한 성훈에 비해 강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친 손을 이리저리 돌려 보며 무심히 대답했다. “어... 하자고”

성훈은 신이 나서 방방 뛰었고 곧이어 자신이 이는 모텔이 있다며 그 곳을 안내했다.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갔다. 성훈은 득달같이 옷을 벗으며 누워 있는 강희 위에 올라왔다. 두 사람은 싸우듯 섹스하기 시작했고, 그 밤 성훈은 어린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듯 강희를 대했다. 강희는 얼마든지 망가지기를 원했다. 한바탕의 난리 후에 성훈은 담배를 태우며, 모텔 방 안에 있는 PC로 게임을 즐겼다. 강희는 성훈이 좋은 남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강희는 오래간만에 노곤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날 오후 늦게 일어난 강희는 온몸이 빠근했다. 부스스한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성훈은 보이지 않았다. 강희는 공허를 보는 듯한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이내 부스스대며 옷을 입는데 방안 정적에 최소한의 소리가 입혀졌다.

22분을 걸어 학교에 도착한 강희는 수업 시간에 약간 지각했다. 강의실은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수많은 말소리가 문을 두드리듯 오가고 있었다. 강희가 문을 열고 강의실로 들어서는데, 순간 진공 상태가 되어 말소리가 멎었다. 사람들은 입구 쪽을 쳐다보고 강희는 순간 숨이 막혀 헛기침을 해 목을 뚫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다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교수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강희는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아 교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강희와 동기 여학생 세 명이 강희에게 다가와 말을 내쏘았다.

“강희야! 너 성훈이 알아?”

“어? 성훈...?” 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성훈! 그냥 뭐... 알긴 알아 왜?”

무리의 왼쪽 끝에 있는 여학생이 말했다.

“너 성훈이 민영이 남자친구인 거 몰라?”

강희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모르는데... 민영이가 누군데?”

양쪽 끝에 있는 여학생들은 기가 차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분위기를 보건대 가운데 흰 와이셔츠의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발뚱까지 긴 치마를 입은 사람이 민영이 같았다.

“너 어제 성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본 사람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민영이 남자친구를 건드려나?”

무리의 여학생은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소리로 말했고, 어느 순간 강의실에 모든 이들이 강희를 주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희가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였다. 내놓고 망신을 주려는 건지 낙인을 찍으려는 건지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다. 강희의 오른팔이 육신거리기 시작했다. 통증이 깊숙이 파고들어 견디기 어려웠다. 강희는 답답한 목소리로 운율을 띄웠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잤으면 너희들이 어쩔 건데?”

그리고 육신거리기 심해지자 강희는 딱지를 끊어내 상처를 더 짚게 하듯 외쳤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난리야 당사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강희의 외침은 강의실의 모든 주의를 이끌었다. 그때 뒤편에 우두커니 서 있던 민영이 말했다.

“너 잘한 거 없잖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영의 목소리는 부러질 듯, 가늘게 흘러나왔다.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강의실의 정적이 등을 밀어주어 크게 울렸다.

“너 남자친구 잘하더라, 혼자 독식하지 말고 나눠 먹자!”

강희는 눈을 부릅뜨고 악에 반친 듯 말했다. 그 말은 내뱉자 강의실은 공기는 급변하여 무겁게 눌러앉았다. 민영은 그 말이 감당하기에 너무 여렸고, 무리의 여학생이 강희에게 뺨을 때렸다. 그 소리는 청아하게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뒤이어 정적이 뒤를 이었다. 강희의 볼은 별갈게 달아올라 육신거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른팔의 통증이 가라앉았다. 강희는 그날을 기점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 사건은 바람을 타고 학교에 널리 퍼졌고 무묘한 학교생활에 좋은 씬을 거리가 되었다. 강희와 걸레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되었다.

\*\*\*

강희가 연락한 사람은 과거 돈을 빌려준 세 명의 남자였다. 제일 먼저 연락한 철우의 자취방은 서울의 한 반지하에 자리했다. 오랜만에 만난 철우와의 만남은 담백했다. 철우의 머리는 짧게 잘려있었는데, 이튿날 해변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군 입대를 앞두고도 철우는 꽤 괜찮아 보였다. 과거에는 새하얀 소년 같던 철우는 소년티는 벗어버린 듯했다. 운동용 열심히 해서 근육들이 옷 위로 울퉁불퉁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강희는 바로 본론을 꺼냈다.

“철우야! 미안한데 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너한테 생활비 빌려줬었잖아 그거 갚아줄래?”

“응 알았어!” 꽤나 씩씩하게 대답했다.

철우는 6평 남짓한 단칸방 구석에서 천으로 덮여있는 물건 앞에 섰다. 철우는 천을 걷어내더니 사람 크기만 한 털복숭이 인형 털을 보여줬다.

“이게 쿠케리라고 불가리아 전통 인형탈이야!”

쿠케리는 온몸이 긴 털로 뒤덮여있어 마치 설인과도 같았는데 머리가 길쭉하게 뻗어있어 천장에 닿았다. 강희는 그 거대한 인형탈을 보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내가 헬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입고 갈려고 제작 업체에 의뢰해서 만든 거야! 이게 불가리아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거야! 한국의 정승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철우의 물색없는 설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강희는 무력감과 분노가 적절히 배합된 눈으로 철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걸 돈이라고 주는 거야...?”

가라앉은 분위기에 주눅이 든 철우는 쭈뼛대며 말했다.

“저기 그제... 나 내일 군 입대하잖아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비싼 음식집도 가보고, 술도 돈 생각 안 하고 부어라 마셨더니 다 써버렸어...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싶어서...”

철우는 점점 기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내가 아는 형한테 말해놨거든 그 형한테 가서 말하면 좋고로 살 거야 번호 보낼게 그제요 대책은 마련해놨으니까...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데 내가 내일은 입대라... 그제요 꽤 비싼 거라서 많이 받을 수 있어 제작한 거라...”

강희는 얼굴을 손에 파묻었다. 깊은 한숨이 손가락 사이사이에서 빠져나왔다. 황당함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쿠케리를 갖고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철우가 강희에게 말했다.

“강희 누나!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철우는 떨리면서도 심지 박힌 목소리로 말했다. 강희는 냉랭하게 철우를 바라보았다.

“나랑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돼?”

강희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이 서지 않아 되물었다.

“같이 있자고...?”

철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을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응 맞아 오늘 나랑 같이 있자”

강희는 그제야 철우의 말을 이해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헛소리하지 마 나 갈게”

강희가 냉담하게 반응하고 돌아서 나가려 하자 철우는 바닥에 무릎을 강력하게 입 맞췄다.

“나랑 한 번만 하자 우리 사귀면서 한 번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자”

철우의 황당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야! 그때 못했다고 지금 하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가 뭐 사귀 거라도 돼? 그냥 몇 번 만난 거지!”

강희에게는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연애 경험이 전무했던 철우에게는 무게감이 남달랐다.

“그러면 지금 사귀면 되지... 제발 한 번만 하자! 나 누나랑 데이트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강희는 철우의 어이없는 공세에 황당했지만 한편으로 실소가 터져 나올 뻔한 것을 참아냈다. 그리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너 내일 군대 가잖아?”

철우는 강희를 설득하려 아무 말이나 급하게 내뱉었다.

“누나! 요즘 군대 많이 짧아졌어! 십팔 개월이야! 십팔!”

강희는 들은 채 만 체 하고 차갑게 뒤돌아 집을 나서려 했다. 철우는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내일 군대 가면 벌써 반한 거야 다 끝났어!”

철우는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고 강희는 다리를 빼내려고 했다. 바지를 내려 삼각팬티 차림의 철우는 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호소했다.

“그러면 누나 사귀지는 말고 지금 한 번만 하자! 나 여차피 처음이라 금방 끝나!”

강희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포기해... 안 되는 거 앞에서 그렇게 이등바등할 필요 없어”

강희는 철우를 뿌리치고 거대한 쿠케리를 들고 자취방 문을 나왔다. 그 인형을 두 손에 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 인형은 너무 커서 몇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다. 해결책을 떠올리며 고민하던 강희는 쿠케리 인형을 입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쳐다보고 관심을 가졌다. 한참을 뒤뚱거리며 겨우 집 옥상에 도착한 끝에 인형을 벗는데 땀으로 샤워한 듯 온몸이 젖어있었다. 강희는 가쁜 숨을 내뿔으며 옥상 바닥에 누웠다. 이 상황에 대해 곰씹어보는데 웃음이 터져 나왔다.

\*\*\*

다음 날 강희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수를 만날 수 있었다. 노량진 학원가 사람들은 모두 개성을 발라낸 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만수가 강희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강희는 노량진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았기 때문이다. 만수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추레한 모습으로 군중 속에서 튀어나왔다. 강희를 보자 능글맞게 인사를 건넸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만수는 노량진의 원주민이 된 거리에 어울렸다.

“오랜만이다! 더 이빠진 것 같네!”

한없이 가벼운 목소리 톤과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여기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 있거든 거기 가서 얘기나 좀 하자! 요즘 커피숍에 사람들이 공부만 하러 와서 수다 떨기가 힘든데 거기는 안 그래!”

강희는 제대한 사람이 민망하게 거절했다.

“아니아... 나 저녁에 또 누구 만나러 가야 해 빌린 돈만 빨리 줘”

“아... 그래? 바쁘구나 그럴 수 있지 바쁜 게 좋은 거야 그치?”

만수는 시시껄렁한 말로 무언가를 무마하려는 듯 보였다.

“저기... 그제 내가 돈을 쓸데가 좀 많아져서 학원비도 책값이다 뭐다 해서 그제가지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너한테 주면 내가 좋고로 팔면 되거든...”

어디선가 들었던 소리에 강희는 낮은 탄식을 뱉으며, 고개를 살짝 돌려 이 상황의 불쾌함을 표현했다. 그 반응을 보자 만수는 다급해져서 말했다.

“어제 급하게 전화받은 거라서 내가 신고 다닐 신발 준비를 못 했어! 미안 미안 그래도 자취방 가면 슬리퍼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신을게 진짜 미안하다”

만수는 입을 가벼운 숨털처럼 작은 바람에도 계속해서 팔려갔다.

“이거 그제요 비싼 거야 발렌시아가 트리플 S 거든 좋지만 그제요 몇십만 원은 받을 수 있어!”

만수는 오래 아껴 신은 듯 꼬질꼬질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저 신발을 좋고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다.

두 사람은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만수는 무인도에서 표류하다 사람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노량진 와본 적 있어? 여기서 공부만 하는 곳이라 재미없다고들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렇지만도 않아! 재밌는 거 되게 많아 공부 스트레스 풀기도 해야 되니까!”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만수를 두고 강희는 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만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늘어놓았다.

“PC방, 노래방, 게임방 이런 것도 다 있어! 그리고 이런 말 하기는 좀 뭐 한데 스타디움 있잖아! 그제 사실 섹터더라고 불러!”

만수는 상대가 듣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 보였다.

“공부 스트레스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게 뭐겠어? 그제지 그제! 그러니까 다들 공부도 하고 육구도 해소하고 일타이피를 노리는 거지!”

하지만 강희는 이런 얘기도 이상하리만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강희 너 길티 플래저 알지? 딱! 그 느낌인 거야! 짜릿하니까! 시험 기간에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잖아! 그래서 여기 놀 거리들이 그렇게 재밌어! 그리고 자취방 거러만 지나가면 소리! 소리! 난리나니까!”

쉴 새 없이 떠드는 와중에 만수의 집에 도착했다. 만수의 자취방은 고시원이었다.

“여기야 여기 8층 올라가자”

만수는 앞장서 문을 열고 계단을 올랐다. 강희는 꼭대기 층에 있는 만수의 창문으로 보이는 것을 몰그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고 음악을 켰다.

만수의 고시원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다. 겨우 8층까지 오면 후 숨을 몰아쉬는데, 만수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강희에게 말했다.

“뿔!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해야 돼! 따라와!”

만수와 강희는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났었다. 강희는 낮은 분위기에 놀려 만수의 지시를 따르게 됐다. 두 사람은 숨죽이며 방으로 향했다. 만수의 방은 집 하나를 압축한 듯 물건이 오밀조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강희는 마치 엘리스가 몸이 커지는 약을 먹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강희 뒤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만수가 상체를 숙인 채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있었다. 강희는 멍한 표정으로 만수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뭐해...?”

강희의 물음에 만수는 멍뚱하여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고개만 들어 명칭하니 강희를 보았다.

“어...? 이거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오랜만에 연락 왔갈래 이진 줄 알았는데...”

강희는 몰그러미 만수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고시원을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강희는 손바닥만 한 창문을 발견하고 열어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의 붉은색 벽돌뿐이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다. 강희는 숨이 턱 막혀 바로 문을 닫았다. 창문에는 강희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얼굴이 비쳤고, 그 뒤로 만수가 느릿느릿 바지를

올리고 있었다. 강희는 창문에 비친 만수를 보며 물었다.

“월세 빌려준 돈으로 겨우 여기서 사는 거야?”

그 소리에 만수는 울리던 바지를 멈추었다.

“어? 응... 월세가 비싸더라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하러니까 돈도 아껴야 되고”

만수는 강희의 눈치를 보며 바지를 다시 슬금슬금 발목까지 내렸다. 그 순간 강희는 마치 꼭 누른 스프링이 튀겨져 나가듯 고시원 방을 빠져나왔다. 만수는 바지가 발목에 걸린 상태로 갑자기 나가버리는 강희에게 부딪쳐 의자에 머리를 박고 넘어졌다. 소리를 죽인 신음 소리를 연신 내뿔었고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무안하게 쳐다보았다. 강희는 문을 나설 때 멈춰서 고개를 돌려 생각하더니 만수의 신발을 챙겨 나갔다.

강희는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한참을 걸었다.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걸음을 멈추었는데 발을 쳐다보니 닳아 해진 스키커즈 신발의 앞창이 들려 발가락이 강희에게 수줍게 인사했다. 이내 강희는 구겨 신은 신발을 발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손가락에 걸고 걸던 만수의 신발을 쳐다보더니 한쪽 발만 만수의 신발을 신었다. 손가락 냄새를 맡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서 인상을 찌푸렸다. 강희는 짝짝이 신발로 밤의 달빛을 받으며 한강 다리를 건넜다. 강희는 걸으면서 자주 아래를 보며 자신과 만수의 교차하는 신발을 쳐다보았다. 계속 쳐다보니 마냥 어색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였다. 강희는 그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이곳에서 성민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희는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짝짝이 신발이 더욱 부끄러워져 신발 안 발가락을 오므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강희 앞에 성민이 도착했다. 성민은 캐주얼한 양복 차림으로 강희를 반갑게 반겼다.

“강희야! 여기!”

그는 늦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유 있는 태도로 걸어오며 말했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강희는 이해해서 그런 건지 분위기에 짓눌려 숙여진 건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희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강희의 짝짝이 신발을 보고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강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희는 그 시선을 눈치채고 살짝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리고 강희의 다친 팔을 보고 호들갑스럽지 않게 물었다.

“다쳤어...? 괜찮아?”

성민은 처음으로 강희의 팔에 대해서 물었고, 강희도 그제야 자신의 팔이 다쳤다는 것을 상기했다. 성민은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머금은 강희에게 따스하게 물었다.

“올라갈래? 밤 되니까 추운데 올라가서 얘기하자”

잠깐 망설이던 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에 젖은 길고양이가 낮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다가가듯 성민의 뒤를 쫓았다. 엘리베이터 안은 너무 고요해서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조심스럽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23층에 도착했다. 성민의 집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넉넉한 공간에 집안 전체가 까마귀처럼 검은빛을 띠었다. 통유리로 된 창문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 그리고 건물들의 불빛이 TV 광고를 대신하고 있었다. 강희는 창문 앞에 서서 몰그러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희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더욱 몸이 노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성민은 주방에서 간단한 간식거리와 와인을 꺼내며 강희를 불렀다.

“강희야! 여기 와서 이거 좀 먹어 기다리나라 배고팠잖아.”

강희는 성민이 꺼낸 음식은 전부 낯설었다. 강희는 그제야 자신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테이블에 앉은 강희는 그 음식들을 기대가 서린 경계하면서 조금씩 먹어보았다. 잠자는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서근서근 맛을 보았다. 입안의 음식이 부드러운질수록 긴장도 풀리기 시작했다. 와인 한 모금 한 모금은 강희의 몸 구석구석 퍼져 나갔다. 성민은 몽롱하게 취한 강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보냈어... 내가 내준 학원비... 그제 때문에 보자고 한 거지?”

순간 강희는 얼음 땀을 하듯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제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모르는 척한 거야 아는 척하면 다음에 네가 학원비 안 내줄까 봐”

성민은 그 얘기를 하면서 개구지게 웃었다. 갑작스러운 성민의 고백에 크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터지듯 강희도 웃음보가 터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웃었다. 차가웠던 분위기는 충분히 녹아들었다.

“엄청 열심히 일했구나 벌써 자기 집도 갖고 회사 대표들은 다 이런데 사냐?”

“그냥 뭐...”

“오빠 로비로 들어올 때 회사 대표 같더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아”

“너랑 헤어지고 공부 밖에 안 했어 그러다 창업 지원받아서 만든 회사가 잘 돼서...”

성훈은 말끝을 흐렸다. 그 대답의 여백은 아득한 넓이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의 집에 자기 능력으로 살려면 그 노력의 질과 양을 기증조차 하기 힘들었다. 되려 고통스러워하는 듯해 보였다. 강희는 살짝 일그러진 그의 미간 주름을 이어보았다.

“우리 처음에 게이클럽에서 만났잖아 그런데 오빠는 게이도 아니면서 왜 거기 있었던 거야?”

이번에는 강희가 술래가 되어 성민을 얼음으로 만들었다. 곧이어 이어진 성민의 답은 얼음을 깨듯 튀어나왔다.

“매일 돌림노래가 들려”

의아한 대답에 강희는 눈을 동그랗게 폈다. 성민은 잠시 침을 가진 뒤 말을 이어갔다.

“똑같은 노래가... 그런데 남자들이 나한테 성적으로 관심 가질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성민은 흘린 듯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강희는 낯설지 않았다. “맞아 나도 그게 재밌더라” 강희는 공감한다는 듯 나직이 읊조렸다. 성민은 살짝 놀라 강희를 보았다. 강희는 창가 쪽으로 다가가 어딘가로 바빠 달려가는 차들과 밤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건물의 불빛을 보며 다시 읊조렸다. “도돌이표가 끝없이 반복되는 거지... 지겨워” 순간 성민의 집은 진공이 가득 메워지는 것 같았다. 강희는 그 감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획 뒤돌아 성민을 보며 적막을 깨웠다. “우리 섹스할래?” 강희의 제안은 이 넓은 공간의 고요를 가득 채웠다. 성민의 눈은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이리저리 흔들렸다. 강희와 눈을 맞대었을 때 강희의 눈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성민은 그제야 이 모든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 좋아” 성민은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내 우물쭈물하면서 뭔가를 망설이고 있었다. 눈길을 돌 곳을 이리저리 찾다 결심한 듯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데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될까?” 성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강희는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준비를 하겠다며 방에 들어간 뒤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지루해질 때쯤 강희는 방문에 다가가 귀를 대어 보았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 들어와!” 강희는 살짝 놀라 몸을 뒤로 기울였다. 그리고 이내 진정하고 방문을 슬며시 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몽고반점 가득한 성민의 푸르스름한 엉덩이었다. 그리고 엉덩이 끝만 간신히 가리고 있는 아찔한 아광 T

팬티가 보였다. 검은색 바탕의 방 덕분에 아광이 더욱 밝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T 팬티 라인은 멜빵처럼 어깨를 건너 앞부분까지 이어져 있었다. 맨키니를 입은 성민은 침대에 양팔과 다리를 침대 모서리에 바춌로 묶은 채 엎드려있었다. 그리고 침대 한편에는 회초리가 놓여 있었다. 성민은 고개를 돌려 회초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희야! 이 회초리로 내 엉덩이 때려줘! 흔내줘! 때찌 때찌!” 성민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어낸 듯 갈라졌다. “어서 때려줘! 욕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할퀴고!” 성민의 엉덩이는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강희가 충격에 놀라 멍해져 있었다. 방 안의 정적은 성민을 실망과 부끄러움에 빠지게 만들었다. “미안해 오늘은 웬지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서...” 강희는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그동안 밀린 웃음을 쏟아내듯 한참을 웃었다. 성민은 갑자기 크게 웃는 강희를 보며 어리둥절했다. 강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방안이 가득 차게 웃었다. 그렇게 속에 눌러져 있던 웃음을 다 털어낸 강희는 성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성민의 엉덩이를 보는데, 몽고반점이 아니라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일하다 생긴 흔적들이었다. 강희는 연민 어린 시선으로 엉덩이를 훑었다. 그리고 회초리를 집었다. “이걸로 때려주면 돼?” 성민은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해주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강희는 회초리를 이리저리 훑으며 슬며시 말했다. “이상하지 그런데 재밌네” “응? 뭐라고?” “별말 안 했어 이제 때린다!” “응!” 강희는 회초리 높게 들어 성민의 엉덩이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방

문 앞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야! 최성민!” 격앙된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방문을 바라보는데 강희는 순간 민영이 서 있는 줄 착각했다. 그 여자의 낯설지 않은 표정과 입을 틀어막은 손의 반지는 강희가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여자는 강희의 손에든 회초리를 뺏어 성민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내려쳤다. 쉬지 않고 마구 내려치는데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성민은 묶여 있는 상태라 벗어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사정없이 맞고 있었다. 강희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집 밖을 뛰쳐나왔다. 앞곳은 장난을 치고 어른에게 혼날까 봐 황급히 도망치는 어린아이 같았다. 한강은 도시의 불빛들이 환하게 비추었고, 강희는 그 위를 힘차게 달렸다. 강희의 얼굴에는 웃음이 탁탁 터지고 있었다.

\*\*\*

늦은 아침 강희는 파스한 햇빛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일어났다. 오래 간만에 잠이 끊기지 않고 잘 수 있었다. 강희는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사람들의 분주한 출근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른한 분위기를 깬 것은 문을 두드리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노크 소리였다. 강희는 문을 열고 아주머니를 맞이했다. 약속한 기일이 되어 찾아온 아주머니 앞에서 강희는 덩달히 돈을 송금했다. 문 앞에서 서 있는 강희 뒤편에 철수와 만수의 물건들이 보였고, 송금한 돈은 전부 성민이 보낸 준 돈이었다. 핸드폰으로 이체를 확인한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말했다. “백십팔만 원! 전부 들어왔네 진작에 이러지 그랬어!” 강희 의문스러운 표정을 숨긴 채 서 있었다. 뒤이어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부탁해!”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옥탑방을 내려갔고, 강희는 문 앞에 휘둘러놓은 듯 남겨졌다. 그리고 강희는 어디선가 시티팝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 소설 부문 심사평 : 서술 전략의 힘

아홉 편의 응모작 중 「가족」, 「친구」라는 범주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품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2-3년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전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 온 여파도 있을 것입니다. 소설은 삶을 반영한다는 평범하고도 변함없는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심사 기간은 작가 지망생들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적 성과를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아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소설의 성패는 무엇을 다루느냐가 아닌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히 스토리텔링의 사회라 할 만큼 이야기가 넘쳐 나는 상황에서 내 소설이 그저 평범한 이야기로 전달될 것인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남을 것인지는 인물, 상황, 갈등 구조들을 어떻게 형상화해 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표현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를 했더라도 이야기를 끌어가는 표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정확

한 문장 구사력을 넘어 이야기를 끌어가는 서술 능력이 응모작들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서술자가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과묵한 편일 때 소설로서의 매력은 반감합니다. 인물과 사건에 대한 정보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갈등 구조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소설은 그런 점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낙타」, 「내 친구」, 「연애 좀 하고」, 「한담」 등은 인물과 상황의 설정, 갈등 구조의 생성 등의 측면에서 좋은 출발점을 보여 주었으나 독자를 깊이 끌어들이기에는 표현력이 약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일차적인 아쉬움은 정보량의 조정 문제에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보와 있어야 할 정보를 구별해서 제시하는 훈련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만한 여자」, 「토란국」, 「일백일의 바람」, 「매화의 가지」는 소설적 발상과 양식의 선택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비

극, 고백 소설, 판타지 등의 양식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읽는 재미를 주는 작품들이지만 그 발상들을 매력적인 이야기로 이끌어 나가는, 작가만의 서술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당선작인 「월세 구하기」는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돋보였습니다. 그 힘은 서술 전략에 있었습니다. ‘답답하게 바라보고 말없이 표현하기’가 그 전략입니다. 주인공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에피소드를 이 전략을 통해 잘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이 전략을 통해 잘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치밀한 갈등 구조 특히 갈등의 해결 단계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좋은 능력을 잘 살려 정진하기 바랍니다. 여러 작품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죽음들을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김동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시 부문 당선작

## 방치

김도경

바나나를 주웠다  
생각보다 노랑지 않았다  
검었던 것 같다 껍질을 찢고 안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오래 방치된 것은 그렇다고  
달궈진 팬 위에서 잊혀갔던 토스트의 새까만 살을 씹다가 네가 말했다  
그날 무식하게 겉면을 태운 슬픔이  
굽어낼 가위도 없이 식탁 위로 놓여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 모르는 곳을 향해 걸었다  
발밑에 눈이 쌓였고  
생각보다 하얗지 않았다

태어나는 것은 없고 죽는 것만 또 한 번 죽는 계절이  
어서 이곳은 끔찍하게 지저분해 언제인가 새벽 내  
썩인 눈 무덤의 시커먼 먹을 짓밟다가 아하하 네가  
웃었는데  
너는 머리가 박살 난 채 그대로 사십 분 동안 눈 속  
에 묻혀 있었다고 했다  
몽쳐서 굳은 피가 너무 오래 튀긴 음식 같았다  
검은 옷을 피부처럼 두른 사람들이  
팔을 들어 서로의 몸을 굽는 걸 보았다  
필사적으로  
나는 벽에 붙어  
혼자 몸을 비빈다

### 시 부문 심사평

#### : 자신만의 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 필요

이번 한성문학상에는 총 40명의 투고자가 200편이 넘는 작품을 투고하였다. 규모로 보면 예전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시를 쓰고 읽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 대중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뿌듯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시이기 하지만, 시는 문학의 한 장르이고 예술이다. 상식에 가까운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시를 처음 써 보거나 별로 써보지 않은 투고자들도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 것을 시적 표현을 통해서 써낸 결과물이 시이다. 나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예년에 비해 눈에 드는 시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훈련된 투고자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투고작들을 꼼꼼히 읽으며 1차로 선별하고 나니, 「박정」(최예현), 「방치」(김도경), 「달의 아이」(오유진), 「겨울의 끝」(정태빈), 「나의 집은 지구가 아니다」(전채연), 「내일 아침엔」(피상민), 「수석이 머무른 다음」(최정현), 「꿈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구승모) 등 모두 8명 투고자의 작품이 남았다. 이번 투고작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산문적인 시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기성시인들의 시에도 산문적인 경향의 시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들을 그냥 추수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산문적인 경향의 형식을 택했을까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겨울의 끝」, 「내일 아침엔」, 「수석이 머무른 다음」, 「꿈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를 맨 앞에 내세운 투고자들의 시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표현력은 좋았지만 다소 관념적이어서 시를 잘 쓴다기보다는 글을 잘 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시 「박정」과 투고된 작품 중에 「고래의 죽음」, 「특별한 공생」 등이 하고자 하는 말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1차로 선별한 8명 투고자의 작품 중에서 「방치」를 당선작으로 뽑는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오래 방치하면 조금씩 상하고 망가지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관계'의 방치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고, “나는 벽에 붙어 / 혼자 몸을 비”될 수밖에 없다. 시 「방치」에는 방치한 것에 대한, 방치한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차분하면서도 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다른 투고자들의 투고작품 중에서는 한두 편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면, 「방치」 투고자의 경우는 같이 투고한 다른 작품들도 좋았다는 말을 부기한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투고한 모든 분에게, 그럼에도, 건필을 기원한다.

강호정(문학문화콘텐츠학과, 시인) 교수

# 새로운 시도가 있는 곳에, 삶의 재미가 있다

배우 겸 작가, 그리고 출판사 대표 백수민(29)

〈편집자주〉

초등학생 시절에 장래희망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 이자 과학자이자 시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로지 하나의 직업에 전업으로 종사한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념에서 탈피하는 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N개의 직업을 병행한다는 뜻의 ‘잡러’라는 신조어의 등장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하나의 일도 구하기 어려운 판국에, 여러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청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청년이 여기 있다. 영화 「두 남자」와 드라마 「내 아이는 강남미인」, 「경우의 수」 등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백수민(29) 배우다. 그는 올해 들어 세 권의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또 한번의 데뷔를 마쳤다. 그가 낸 두 번째 책은 사진집이기 때문에,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기록을 직접 손으로 엮고 싶은 마음에 독립출판사를 설립해, 현재 출판사 ‘루시앤크리스’의 대표로 있기도 하다.

기자가 만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즐기는 사람이었다. 삶에서 그 무엇보다 재미를 1순위로 설정하고,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우로서의 길을 걸어오던 와중에, 그가 거리낌 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버스를 갈아타고 갈아타, 5시간을 넘게 달린 끝에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어릴 적의 백 배우는 꿈이 자주 바뀌는 아이였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보면 본 대로 하고 싶은’ 성향을 타고났다고 설명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드라마와 영화 보기’였고, 이것이 현재 그가 백 ‘배우’라 호명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 이 취미에서 막연히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뽕이 좋아서 제빵사를 꿈꾸기도, 어머니가 매일같이 뉴스를 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나운서를 지망하기도 했어요.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가 꿈이 바뀌고요. 그렇지만 7살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본 기억 덕분에 배우를 제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순간이 쌓여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로 진로를 설정한 것이지요.”

또 그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민사고 출신 배우’라는 것이다. ‘민사고’는 대한민국 굴지의 명문으로 꼽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일컫는 줄임말이다. 이 학교에서 배우란 드문 진로 희망사항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모교의 환경이 배우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곳에서의 경험 또한 후추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네 집에서 같이 시험 준비를 하다가, 민사고의 한 선배님이 쓴 책을 읽었어요. 민사고는 야간자율학습이 없다는 사실을 그 책으로 알게 됐죠.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야간자율학습이 너무도 하기 싫어서 민사고에 편입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운 좋게 합격을 한 거죠. 민사고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했고, 배우 동아리나 사진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배우의 꿈을 꾸던 그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성적에 맞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로 진학해야 했다. 전공이 배우와 별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배우가 되기 위해 학교 안팎으로 노력을 이어갔다. 학교 내에서는 연극동아리 ‘성균극회’에 들어가 연극 무대에 서는 활동을 이어갔고, 학교 밖에서는 기획사 오디션에 보러 다녔다.

“극회 활동이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꿈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솔직히 처음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얻고자 극회 활동을 시작했죠. 극회 활동으로 무대에 올라 보니 ‘이거다’ 싶었어요. 무대에서 연기하고, 끝나고 박수받는 과정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거웠어요. 극회를 통해 연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연기 학원도 다니게 됐죠.”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연기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 당시 주변인들은 이를 만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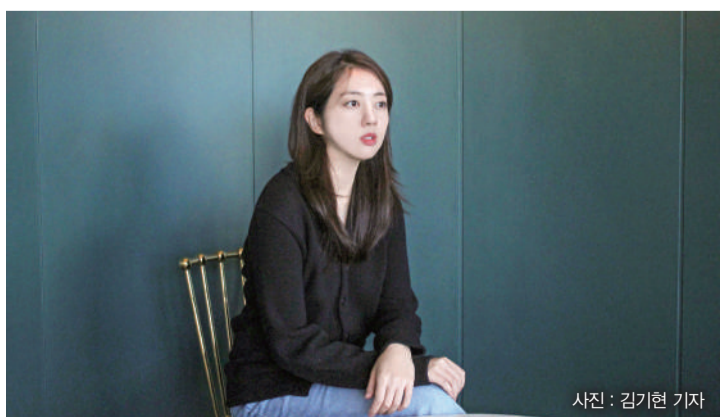


사진 : 김기현 기자

▲ 지난 13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하는 백수민

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럼에도 그는 큰 흥미를 두고 있지 않은 학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중퇴 이후 본격적인 ‘배우 지망생’ 생활에 돌입했다.

“중퇴의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학교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느끼고 있었고, 방향하며 미루다가 2학년 때의 어느 날 자퇴가 하고 싶어서 결심한 거예요. 자퇴하겠다고 지인들에게 말했을 때도, 연기가 하고 싶다고 처음 밝혔을 때도 반대하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텅 빈 응원만 들었다면 거만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반대하는 시선 덕분에 더욱 이 악물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는, 중퇴한 지 2년여 만에 영화 「두 남자」로 데뷔했다. 주로 연극 무대에서 오다 처음으로 매스 미디어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촬영 이외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제작진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익혀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생각했던 연기 활동과 실제 촬영 현장에서의 모습 간에 괴리가 생긴 순간이었다.

“매체로 넘어오면서 힘든 점이 많았어요. 무대는 끊임없이 연기하고 관객과 호흡하는데 영화나 드라마는 촬영 때에만 연기를 하기 때문에, 촬영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대기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현장에서 제 의견을 다른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아직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또한 백 배우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연기하는 동안 자신을 비하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을 꼽았다. 지금의 그가 돌아보기에 그때의 자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일이 빈번했다.

“제가 똥똥하다든지, 연기를 못한다든지, 열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기비하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되던 일마저 안 되게 했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백 배우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일기 쓰기와 그림 그리기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그에게 일기장은 어린아이의 애착 인형, 가장 친한 친구 그 이상이다. 가장 솔직한 그의 감정으로 일기장을 채운 적이 많았고, 연기 공부에 대한 내용도 빼곡했다. 그림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곧잘 표현했다.

“기록하는 일을 좋아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이



▲ 드라마 「경우의 수」를 촬영 중인 백수민



사진 제공 : 백수민

더 길었어요. 놀이로 시작된 일이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고 있죠. 글을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안정되고 온전한 제가 됐다고 느껴요.”

그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계기도 일기와 그림이었다. 백 배우가 작가로서 처음 출간한 책 『신인일기』는 대학 시절과 배우를 준비할 때의 일기를 엮어 만든 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인일기』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한 사적인 기록을 공개하는 큰 도전을 하게 된 것도 스스로 만든 집착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중 하나였다. 더불어 도전하는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든 도전하는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타인의 기록을 보고 공감을 얻고, 감정적 교류를 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원래의 저라면 출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앞의 벽을 깨기 위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더 알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전에 제가 썼던 글들을 모아 봤어요. 모아놓고 보니 너무나 소중하기도 하고, 제 글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출판을 고민하다가, ‘반대로 살기’라는 도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출판을 결심하게 됐어요.”

첫 번째 책을 출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재미였다. 완전히 새로운 일기도 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어떤 책을 내볼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사로잡히기까지 했다. 이후 평소에 그가 관심 있어 하던 사진 찍기에 뛰어들어 결과물 두 번째 출판물 『DAYDREAM』이다.

“책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바빴는데도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일도 재밌었고, 기획안을 쓰는 것처럼 새로운 일들도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신인일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미 ‘다음에는 무슨 책을 내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기회가 닿아 사진집을 낼 수 있었죠.”

이후 그는 『실은 아주 작은 불안이었어』라는 에세이를 출간하며 작가로서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일에 거리낌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누구나 노력하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요즘의 환경이 한몫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그가 배우 생활을 하며 얻게 된 새로운 삶의 태도도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기여했다. 그는 ‘열심히 논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생이 재미있을 수 있을지 고민해요. 저도 이전에는 좋은 연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금방 지쳤죠. 문득 반대로 생각해 보니 재미가 있다면 오히려 더 오래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시도하고 그치는 일에 지지치 말고 당부한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고 난 뒤에야 수면에 드러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상 주변인이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면 일단 해보라고 조언한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했던 바와 달라 실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시도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기 생각과 달라 실망하는 일에 지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는 항상 더 많이 도전해보라고 조언하는 편이에요. 해봐야 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현명한 방안이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발을 담가 보며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생은 길잡이요. 무엇이든 시도해 보세요.”

# 간편결제, 내 손 안의 첨단 마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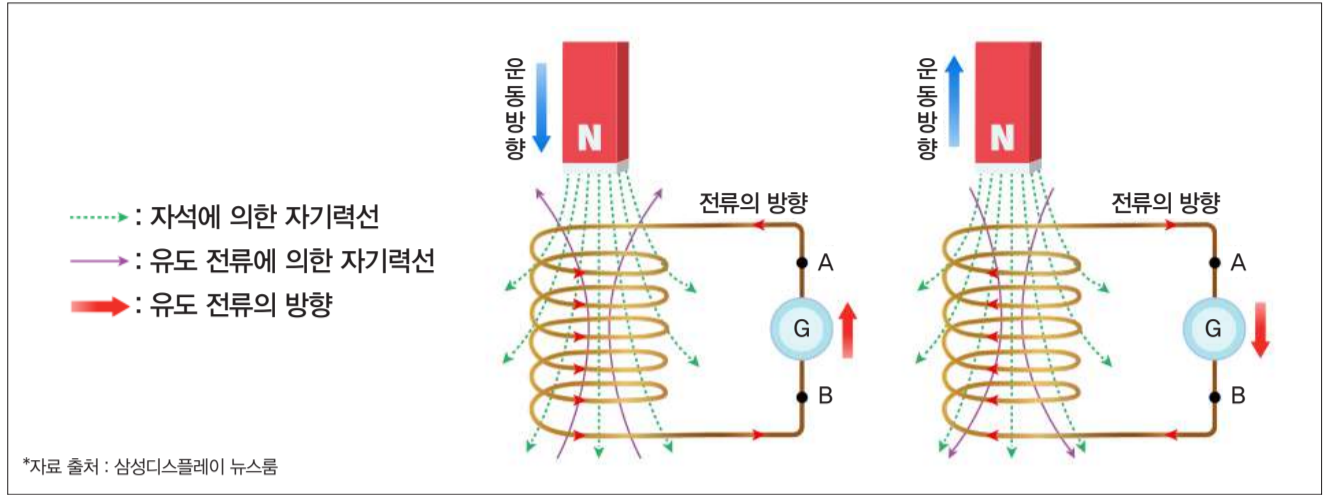
바야흐로 지갑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삼성페이'를 필두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나날이 위세를 넓히고 있다. 이들은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마치 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막강한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2019년 약 1,007만 건, 3,171억 원 규모였으나 2021년 약 1,981만 건, 6,065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올해 안으로 '애플페이'가 시범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 한번 간편결제에 대한 관심이 불타올라고 짐작된다. 손치부(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내의 빅테크(Big-Tech) 사업자,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도 플랫폼 기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란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전자 결제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는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금융과 기술을 아울러 한 단어로 합친 핀테크(FinTech)의 일종이다. 과거에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인 OTP(One-Time Password) 등을 매번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두면 지문 인식 혹은 비밀번호 등의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쳐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오프라인 결제방식에 따라 ▲애플카드(QR코드, 바코드) ▲MST ▲NFC 방식으로 분류된다.

'애플카드'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해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결제 방식이다. 주로 카드사에서 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 과정에서 간단한 인증만 경유하면 QR코드와 바코드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손 팀장은 "QR코드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QR코드를 생성 및 제시하는 주체에 따라 고객 제시형(CPM)과 가맹점 제시형(MPP)으로 나뉜다"며, "QR코드 정보의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QR코드와 바코드는 빛의 흡수와 반사를 통해 정보를 인식한다. 바코드는 검은색과 흰색의 선형으로 이뤄져 있지만, QR코드는 흑백의 격자무늬 패턴을 띤 형태이다. QR코드 각 모서리에는 유독 큰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는 '위치 찾기 심볼'이다. 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정사각형들은 상하 좌우 어느 방향에서든 QR코드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바코드보다 발전된 형태다. 또한 나머지 작은 정사각형인 '셀'은 검은 점과 흰 여백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QR코드의 작동 방식 자체는 바코드와 동일하다. 적외선 센서를 통해 코드를 인식하면 검은 영역은 약한 빛으로 반



▲전자기유도에서 자석의 N극이 코일 위쪽으로 접근하면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을 방해하는, 즉 반대 방향인 B→A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때 코일이 멀어지면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류는 A→G→B로 흐르게 된다.

사되고 흰 영역은 강한 빛으로 되돌아간다. 컴퓨터는 이를 0과 1의 2진법으로 변환해 정보를 읽어낸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간편결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코드가 1차원이라면, QR코드는 가로와 세로를 분할해 21×21부터 177×177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QR(Quick Response)이라는 의미처럼 즉각적인 반응 속도도 가지고 있다. 이상상(경상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는 "QR코드는 바코드보다 시장 확장성과 활용도가 높아 최근 많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재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사

용되는 자기장을 이용한 결제방식, 'MST' 기술을 알아볼 차례다. 이 기술의 명칭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Magnetic Secure Transmission)의 약자다. 더불어 삼성이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얻게 된 첨단 기술이기도 하다. 한때 MST 기술과 유사하게 자기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인 WMC(Wireless Magnetic Communication) 기술을 이용한 '엘지페이'가 운영됐으나, 현재는 엘지의 스마트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장된 상태다.

MST 기술은 마그네틱 카드를 스마트폰에 이식한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그네틱 카드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선을 긁어 결제정보를 읽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결제카드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MST 기술은 바로 이 마그네틱 카드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모방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된다.

하고 변조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보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교수는 "마그네틱 카드가 사실상 국내에서만 한정돼 사용되고, 해외에서는 마그네틱 결제가 어려운 만큼 NFC 결제방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NFC는 일종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이다.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은 두 기기가 접촉하지 않고도 13.65MHz(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해 10cm 거리 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NFC 기술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데이터를 읽고 보내는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NFC 기술은 교통카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RFID'에서 확장됐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도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통신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예로 들어보자. 교통카드에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코일과 반도체 칩이 들어 있으며, 요즘처럼 기계도 마찬가지로 코일과 안테나가 포함돼 있다. 이때 요즘처럼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면 하나의 자석이 된다. 여기에 코일이 있는 카드를 가져다 대면 전자기유도 현상을 통해 처리에 필요한 전류가 공급되면서 안테나 간 통신이 이뤄진다. 이 교수는 "여러 종류의 RFID 기술 중 근거리에서 동작하는 기술을 확장한 것이 NFC로, RFID보다 수신 거리는 짧다"고 설명했다.

NFC를 이용한 간편결제 원리도 상술한 RFID와 비슷하다. NFC 리더기는 지속적으로 13.65MHz의 신호를 보낸다. NFC 칩과 코일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가져다 대면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 간편결제가 진행된다.

NFC는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보안성이 높아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만, 결제를 위한 전용기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현재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에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다. 손 팀장은 "최근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글로벌 브랜드의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편리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접촉 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NFC 리더기 등 가맹점 결제 인프라 구축은 시장에서 범용적인 결제 서비스로 자리 잡는 데에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NFC 방식의 결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간편결제 기술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전망했다. 손 팀장은 "특정 IT 기술이 적용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는 도입국가의 결제시장 문화와 환경에 따른다"면서 "결제수단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무선통신 등 IT기술의 발달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된 기술이 실제 생활에 다양한 서비스로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개인 고객 및 결제 사업자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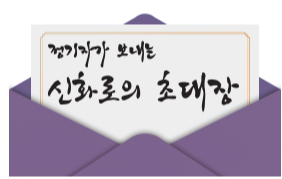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마그네틱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긁으면 결제가 완료된다. 이는 마그네틱 카드 뒷면의 검은색 마그네틱 선을 이용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자석의 N극과 S극이 0과 1의 2진법 배열로 나열돼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카드를 코일이 감겨 있는 카드 단말기의 흡에 넣고 긁으면 이 과정에서 '전자기유도'가 발생해 카드 속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다.

전자기유도는 자석을 이용해 전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전선을 감은 코일 속에 자석을 빠르게 접촉시키면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다. 전기가 통하는 물체 주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며 전압이 유도돼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그네틱 선의 자석이 카드를 긁는 과정에서 단말기의 코일과 반응하고, 이때 발생한 전기 신호로 카드의 정보를 해석하고 결제 정보를 보낸다.

MST 기술은 스마트폰이 생성하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자기유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 방법은 마그네틱 선 대신 스마트폰 내에 있는 MST 코일을 이용해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를 코일이 있는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전자기유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카드 정보를 단말기가 인식한다. 이 교수는 "MST 기술은 마그네틱 카드를 긁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자기유도 관점에서 보면 자기장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는 동일한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MST 기술은 국내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마그네틱-IC 혼용 카드의 보급 비율이 높은 만큼, 마그네틱 카드의 결제할 수 있는 MS 리더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MST 기술은 MS 리더기로도 결제를 진행할 수 있기에 별도로 기기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손 팀장은 "가맹점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없는 MST 기술은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적으로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이 줄어들어 따라, 간편결제는 점차 NFC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마그네틱 카드는 카드의 정보를 쉽게 복제



## 선화공주는 정말로 서동과 혼인했을까?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상당히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였다. 다만 우리 설화 속에서는 이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선화공주와 서동의 이야기다. 서동은 사랑하는 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선화공주가 자신을 좋아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렸고, 이와 관련한 노래가 현재까지도 문학작품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바로 '서동요'다.

"선화공주님은 / 남몰래 사귀어두고 / 서동방을 /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요'에 대한 국문학자 양주동의 해석이다. '서동요'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 기법으로 쓰인 향가 문학의 한 종류이기에, 기록된 한자의 뜻이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해 봐야 한다. 학자마다 그 해석이 대동소이하지만, 선화공주가 서동(善童)과 몰래 사랑한다는 것이 '서동요'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서동'은 마를 캐어 내다 파는 아이를 일컫는다. '서동요'가 실려 있는 '삼국유사'에는, '서동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설화도 함께 기록돼 있다. 배경설화에 따르면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며, 서동은 훗날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이 된다.

'삼국유사'에는 서동의 어머니는 과부인데, 용과 통정해 서동을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서동이 태어난 곳은 '서울 남쪽'으로, 당대 백제의 수도 사비 남쪽에 볼 수도 있고, 학자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로 추측하기도 한다. 마를 캐어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의 수도로 떠난다. 서동은 신라의 수도에서도 아이들에게 마를 파는데, 자신에게 마를 사 먹는 동네 아이들에게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과 몰래 만난다는 내용의 '서동요'를 부르고 다니게 한다. '서동요'로 인해 퍼진 헛소문을 전해들은 신라의 신하들은 왕에게 외간 남자와 함부로 만난 공주를 귀양 보내라고 청한다. 결국 귀양을 떠난 선화공주는 귀양길에서 서

동을 만나고, 우연히 만난 그와 사랑하게 된다. 이후 서동은 그간 모아놓은 금덩이들을 진평왕에게 바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사위로서 인정받고, 백제의 왕이 되는 데에도 성공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미륵사'의 창건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왕비가 된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절을 창건하게 해달라고 청을 하니, 그 절이 전북 익산에 자리한 미륵사라는 것이다. 미륵사는 현재 절터와 석탑만 남아 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무왕과 선화공주가 부부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2009년, 미륵사지 서석탑에서 '금제사리봉영기(이하 사리봉영기)'가 발견된 이후, 선화공주가 정말 무왕의 부인이 맞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뜨거워졌다. 사리봉영기는 미륵사 창건 당시 백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금판에 글을 쓴 유물이다. 그곳에 백제 왕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적혀 있어, 무왕의 부인의 정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좌평은 백제의 고위 관직으로, 흔히 '사택왕후'로 불리는 사택적덕의 딸이 무왕의 부인이 맞다면, 그는 왕족이 아닌 귀족 출신 왕비로 볼 수 있다.

설화와 상반된 정보를 기록한 사리봉영기가 발견된 이후 무왕의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했고, 그 중 사리봉영기를 근거로 사택왕후만을 무왕의 부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장웅(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주무관은 "사리봉영기는 백제 당대의 기록이며, 선화공주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설화의 주인공"이라며 "사택왕후만을 무왕의 부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화공주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당대 신라와 백제의 관계를 근거로 든다. 국내의 다수 역사서를 종합해 보면, 무왕이 신라를 먼저 공격한 일이 11번이며 신라가 먼저 백제를 공격한 일이 2번 있었다. 양국 간에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사돈을 맺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 김기섭(경기도박물관) 관장은 "무왕은 즉위 2년 만에 신라를 공격했다"며 "7세기의 정세를 고려하면 두 왕실 간 혼인이 성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전쟁을 벌였음에도 사돈을 맺은 전력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선화공주가 무왕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는다. 실제로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의 동북쪽 지역을 빼앗은 후에도 백제의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낸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노중국(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무왕은 왕권 강화와 고구려에 대항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화친이 필요했던 양국은 국혼을 추진했고, 이를 재미있게 엮어낸 결과물이 서동 설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무왕의 부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리봉영기에 따르면 사택왕후가 무왕의 부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일부다처제 등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다며 두 여인 모두 부인이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 고대사에서는 왕이 후궁과 별개로 왕비를 여러 들인 일이 많다. 김병남(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고구려 유리왕, 대무신왕 등이 2명 이상의 비를 뒀으며, 무왕 또한 여러 왕비를 거느렸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가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화공주가 백제 왕후였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역사학자들은 그 시기의 나-제간 정세를 언급하기도 한다. 설화 속 혼인을 통해 두 나라가 화해했는지, 심각한 경쟁을 빚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노 교수는 "왕실 간 행해지는 정략적 결혼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며 "무왕과 선화공주의 결혼은 양국의 화평 관계가 시작되는 605년 전후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6~7년간 전쟁도 소강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소통 그 이상(以上), 학생대표의 정도(正道)

매서운 찬바람이 불을 따갑게 만든다. 새해에 대한 설렘이 차오른 지금, 누군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본인은 2022년을 되돌아보며 올해를 이끌었던 학생대표들을 떠올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안정화되면서 대면수업이 대폭 확대됐고, 축제나 MT 같은 '대학생활'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소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 역시 지난 몇 년보다 바빠 움직였다. 수많은 행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판단은 학생들의 몫이다.

본사가 실시한 제37대 총학생회 BASE 학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냈다. 특히나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주관식 답변이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소통 부분에서 총학을 높이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우들은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대표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학본부에 전달하고, 입장을 대변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학생대표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듯, 11월 치러진 총선거의 전반적인 공약은 소통으로 수렴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의문이 드는 지점도 분명하다. 학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과 같은 것을 '공약까지 내세울 일일까. 학생을 대표하며, 학생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자치기구가 학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다른 소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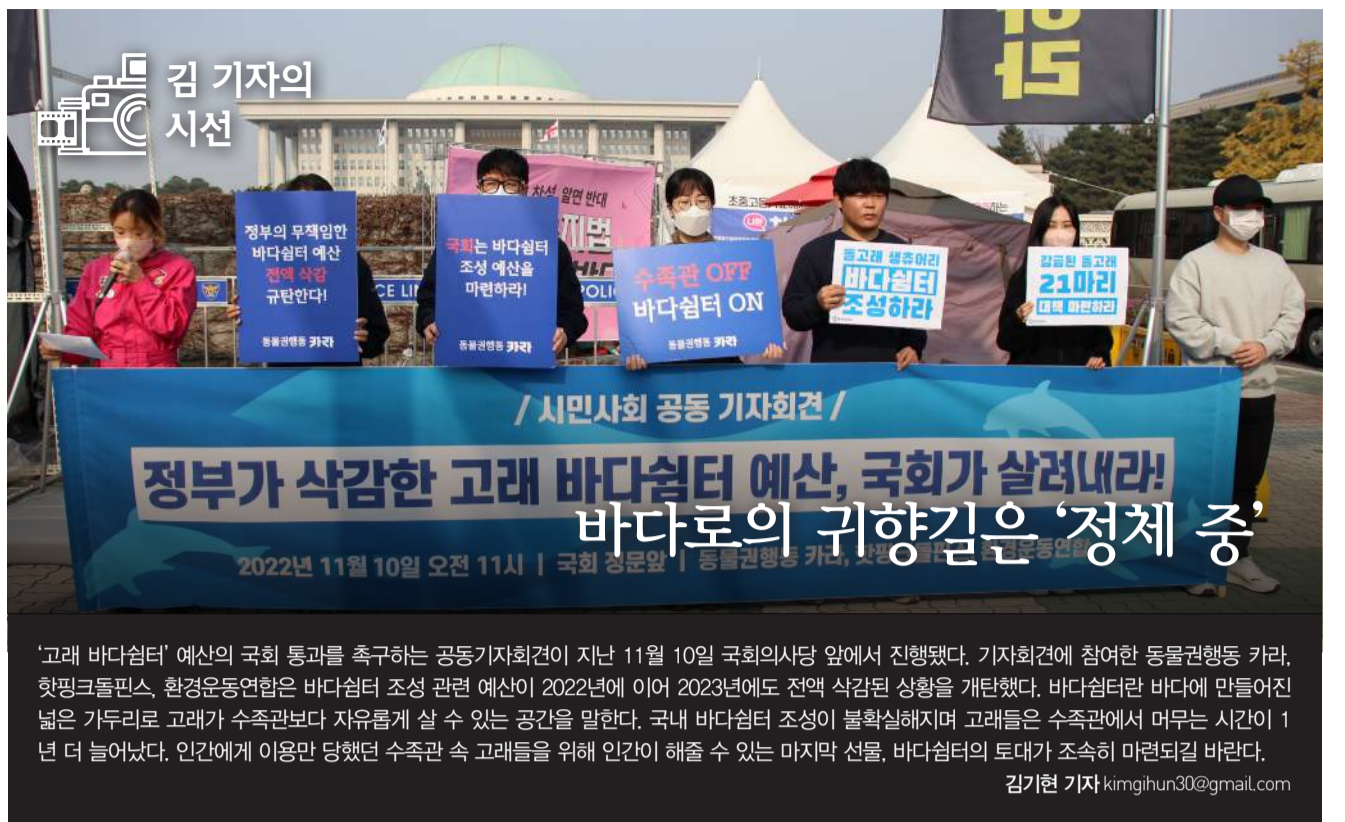
공약의 일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약인지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그들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인가.

본사가 총선거 기간을 맞아 5개년 총학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총학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소통의 방식은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대표가 말하는 소통은 어딘가 달라야 한다. 소통 창구가 무엇인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더불어 이 소통은 그저 듣기에 국한돼서도 안 된다.

지난 6월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당선된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성동구청장은 <시사I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원을 듣는 것부터가 정책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듣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그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고 연구해야 혁신이라 불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학생대표는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결과까지 도출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궁극적 해결에는 도달했는가. 학생대표란 민원을 듣고, 해소하고, 체계적 변화까지 이뤄내야 하는 리더의 자리임이 분명하다.

2023년을 이끌 학생대표들은 단순 소통을 넘어선 이상적인 리더가 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까. 1월 1일부터 그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학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대표'의 책임감을 인지하며 '자치'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학생대표가 가야 할 정도(正道)다.

한혜정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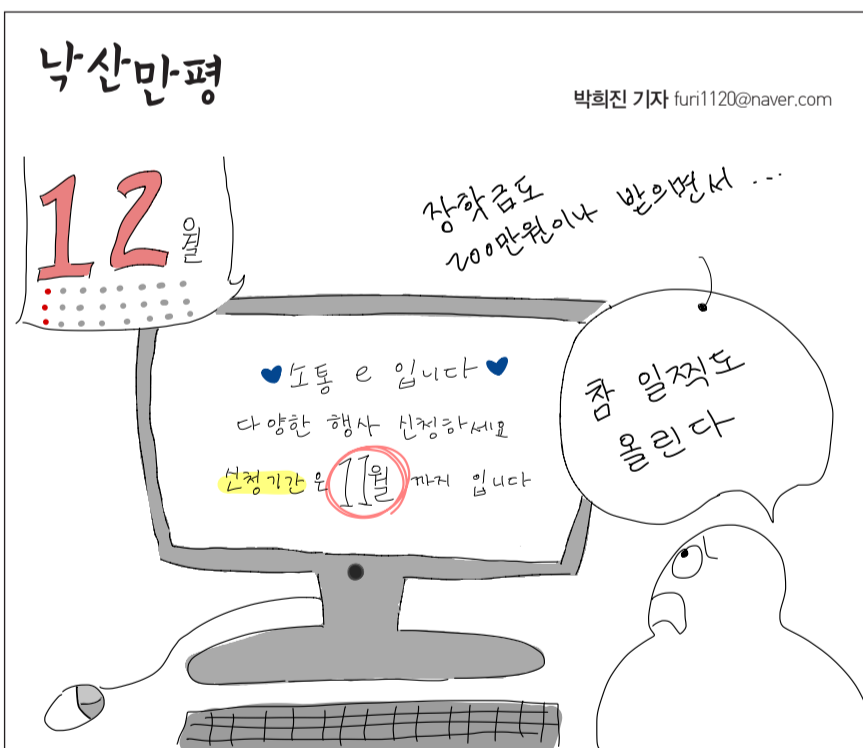
'고래 바다쉼터' 예산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물권행동 카라, 핏핑크, 환경운동연합은 바다쉼터 조성 관련 예산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액 삭감된 상황을 개탄했다. 바다쉼터란 바다에 만들어진 넓은 가두리로 고래가 수족관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국내 바다쉼터 조성이 불확실해지며 고래들은 수족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1년 더 늘어났다. 인간에게 이용만 당했던 수족관 속 고래들을 위해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바다쉼터의 토대가 조속히 마련될 바란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기자수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젊다

기자가 되고 싶다. 입학 당시 막연히 가졌던 소망이다. 학내에서 기사를 할 수 있다는 한성대신문사에 지원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몽똥그려진 꿈이어서였을까. 열정만 있다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보사 생활은 모든 순간이 위기였다. 눈이 빠지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사실확인, 취재원과 관계 등은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 그중에서도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 어려운 것은 현장 취재다.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학보사의 특성상 현장에 홀로 가는 일이 빈번했는데, 기성 언론사 기자 사이에서 취재하기 수월한 자리를 차지하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뒤늦게 자리를 선점하려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방해가 된다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밀쳐지기 일쑤

였다. 그뿐인가. 플래시가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형 카메라로 취재하는 기자들 옆에 손바닥만한 구형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내 자신이 때론 볼품없어 보이기도 했다. 본사가 소유한 카메라는 노후화로 배터리가 빨리 닳기에 현장에 나갈 때는 학보사 내에 있는 2개의 카메라를 모두 챙겨야 한다. 때문에 땀방이 내리쬐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양손에 짊어지고 약 5시간을 걸으며 취재한 경험도 있다. 학업을 병행하며, 업무를 소화 내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현재 한성대신문사의 기자들만 해도 학업과 이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학업을 챙기며, 정해진 기한까지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무게에 대한 고단함은 대학생이 감당하기에 버겁다. 특히, 학보사 마감주와 시험 기간이 겹치는 기

간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고 싶어진다. 독자들에게는 한성대신문사가 이따금씩만 신문을 발행하는 기구로 보일지 몰라도 기자들은 하루하루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건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뿌듯하지만, 끊이지 않는 업무에 활동이 버거웠던 적도 잦았다. 실제로 한 호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텐회의를 준비하기 전에 퇴사 핑계거리를 고민한 경험도 있다. 단언컨대 나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한성대신문사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다. 기성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한성대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학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 기자들의 사명기 때문이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기자사령**  
**임**  
 부장기자 박희진(인문 1) 정 기자 송성욱(사회과학 1)  
 정상혁(인문 1) 장현진(사회과학 2)

**동정란**  
 남두희(사회과학부) 교수 남 교수는 한국ITS학회 2023년 학회장을 맡게 됐다.  
 한민규(IT융합공학부) 교수 한 교수는 지난 10월 19일 'oneM2M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11월 9일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0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낙산에 올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2022년 월드챔피언십(이하 월드컵)에서 DRX가 우승을 차지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이번 월드컵 시작 전 DRX는 2022 스프링 5위, 서머 6위로 마무리 후 선발전에서 가까스로 월드컵에 진출한 팀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승은 어렵겠지"가 그들을 향한 평가였으며, 객관적 전략 차이와 선수들의 폼과 체급 등이 이유였다. DRX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로그전에서 패배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심지어는 다음 상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TES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그전 패배 이후 DRX는 TES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 기세로 타이브레이커 포함 최종적 5승 2패로 조 1위 8강에 진출했다. 토너먼트 첫 경기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EDG, 4강에서는 LCK 1시드이자 월드컵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던 Gen.G까지 잡아내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Faker 선수가 버티는 T1을 잡아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DRX의 김혁규 선수는 만 27세로 프로로서 적지 않은 나이이다. 처음 월드컵을 출전하고 우승하기까지 10년이 걸렸고, 항상 포기하지 않으며 꿈꿔왔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혁규 선수는 "매일매일 꿈꿔왔던 이 자리에 올라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올라와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며 "옆에 함께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 전했다. 대학생인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간다. 스스로를 갈고 닦는 모든 과정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 이때 김혁규 선수는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가치를 중시 여겼다. 이처럼 내 곁에 있는, 함께 하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으며 꿈을 이루기를 바라본다. 이용재(사회과학 3)

## 의화정 월드컵과 축구의 의미

카타르에서 제22회 월드컵 국제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인의 열띤 응원도 함께 한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즐기는 스포츠 행사가 아닐까 싶다. 하나의 운동 종목일 뿐인 축구가 이처럼 수십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축구 역사가 골드브라츠인 축구가 "물리적 운동성과 예술성의 균형, 반사적인 움직임과 복잡하게 짜여진 전술이 균형을 갖춘" 매우 드문 스포츠라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주장했다. 찬양 일색의 주관적 진술이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다수다. 경기 자체의 내재적 매력보다는 외부의 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축구가 '축구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축구가 가진 정치적, 계급적 함의에 대한 것이다.

축구가 조형된 중주국 영국에서 초기 축구 대회는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FA컵이 사례다. FA는 영국 축구협회(Football Association)라는 뜻이다. 그런데 협회의 임원이 모두 귀족들이었고, 이들이 만든 팀이 단골 우승팀이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아마추어리즘의 순수성 유지를 주장하며 선수가 돈을 받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죄악시키는 이념과 제도를 고수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은 연습할 시간도, 경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힘들었다. 1885년 축구의 프로스포츠화가 허용되었다. 이후 귀족팀은 다시는 FA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선수로 뛰고 응원하는 프로팀이 우승팀이 되었다. 축구 스타는 서민들의 영웅이었다. 축구는 150여 년

전에 이미 '축구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이는 축구 세계화와 연계되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결성되었고, 얼마 후 월드컵 대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근거에서 초대 회장 줄 리메(Jules Rimet)는 축구가 "사람들을 단결시키며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놀이와 문화에 관한 연구인 '호모 루덴스'에서 요한 호이징하는 "질서를 지킨 투쟁은 놀이이다"라고 했다. 월드컵은 경쟁이나 투쟁이 아니라 놀이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2002 한일월드컵 당시 우리가 느꼈던 '축구 이상의 그 무엇'이 바로 놀이로서의 축구의 본질과 같은 것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질서를 통해 월드컵의 본질을 완성하는 성숙한 경기와 관람문화를 기대해 본다. 김기홍(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운 : 세로 세 : 상을 보다

## 내일을 질문하는 청년들

“어떤 것이 궁금해 오셨나요?” 변화기를 거닐다 보면 쉽게 점술집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청년층은 이러한 점술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타로, 사주 등과 같은 운세 보기에 흠뻑 빠졌다. 2019년 설문조사 기업 ‘엠브레인’이 진행한 ‘운세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인식 평가’에 따르면,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사주카페’, ‘길거리 점집’에서의 유료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았다.

이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타로와 사주다. 타로는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점 가운데 하나로 카드에 그려진 그림의 종류 및 방향을 통해 미래를 점친다. 또한 사주는 생년월일과 출생시간을 따져 길흉화복을 점치는 동양의 점술이다.

운세 보기는 과거 신문과 같은 매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청년층의 접근성이 더욱 확장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운세 보기 서비스가 성행할 정도다. 임병호(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SNS가 가진 용이성과 익명성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양상”이라며 “온라인에서 운세를 보는 현상 또한 속도의 문제일 뿐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홍은실(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운세 보기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청년층이 이에 열광하는 측면에는 보다 복합적인 사유가 영향을 미친다. 우선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년 시기에는 취업, 이성 교제, 결혼, 자금 마련 등과 같은 막대한 미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원(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의 청년층은 미래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져,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운세 보기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통제감을 획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영수(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운세 결과의 신뢰 여부를 떠나서, 취업과 주거 등에서 부모 도움 없이 기성세대를 추격하고 역전할 가능성이 낮아진 청년세대가 불확실성을 이겨내고자 하는 접근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청년층의 불안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현재 20대 초중반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학창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생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타인과의 단절 속에서 다시 공동체 생활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점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최승원(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대학은 공부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직장이라는 사회로 진입하기 전의 과도를 체험한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렵고 모호할 수도 있는 인간관계를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취업했을 때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희(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면 자신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더욱 막막함을 느낄 것”이라고 술회했다.

더불어 소속감이나 동료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세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된다. 젊은 층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전망하는데, 그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경험에 대한 기회가 적다 보니 스스로를 정의할 때 운세를 활용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운세 보기는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을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며 “만남을 시작할 때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운세 보기가 상담센터 및 정신과 진료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월등하다는 점을 유행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타로나 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탐색하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상담센터나 정신병원은 찾아가기까지의 심적 부담도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인간은 무엇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 운세와 같은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큰돈과 시간을 들이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던 과거의 청년층과 달리, 최근에는 비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 운세 보기 유행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바로 ‘반지성주의’의 등장이다. 반지성주의는 과학 등 합리적인 이성으로 구축해놓은 인류의 성과물을 자신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일련의 통제감을 얻기 위해 점술과 같은 운세 보기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인간의 특징이지만, 최근 반지성주의의 등장이 운세 보기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유행에 발 맞춰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변화기를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운세 뽑기 기계’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김학목(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기성세대가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하나의 책임으로 무겁게 여겼다면, 청년세대는 자신만의 삶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문제 상황을 가볍게 해소해 나간다”고 분석했다. 조창오(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운세 뽑기 기계는 미래의 나를 심각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북돋는 것에 보조 수단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운세에 필요 이상으로 과몰입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청년층은 운세 보기를 바라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않고, 단순 유희로 즐기는 데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중독 현상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나, 과도한 맹신은 좋지 않다”고 역설하며 “한두 번의 유희적인 재미 경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고 돌파하며 수많은 카드가 놓인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실험해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사주팔자

## 사주팔자, 결국 살아가기 나름

사주팔자(四柱八字)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다. 4개의 기둥(四柱)은 각각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나타내며, 각 기둥은 2개의 글자로 이뤄져 있다. 이들 글자로 사람이 태어난 때를 나타낸 것을 사주팔자라 하며, 이를 통해 길흉과 운명을 점치는 일이 ‘명리학’이다. 8글자들은 특정한 22개의 글자 중에서 구성된다. 어떤 원리가 숨어 있기에 8글자로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명리학에 의한 운명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양성모(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특임교수는 “사주가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해석을 위해서는 이론의 기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개의 글자는 크게 천간과 지지로 구분된다. 천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10글자다. 지지는 십이지를 가리키는 한자로,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가 그것이다. 둘을 합쳐 ‘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리학의 초기 이론을 확립한 사람은 당나라 때의 이허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허중은 연주, 즉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월과 일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점을 치는 ‘고법사주’ 이론을 구체화해 ‘이허중명서’라는 문헌을 만들었다. 이는 이허중이 살았던 시대인 ‘당’을 따 ‘당사주’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후 5대 10국 시기에 서자평이 태어난 날의 천간인 ‘일간’을 중심에 놓는 자평명리학을 창안했고, 거기서 계승과 발전을 거듭해 현대의 명리학 이론까지 도달했다. 김연재(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교수는 “명리학 이론의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론을 정리한 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기록들이 혼재돼 있다가 나중에야 정리된 문헌이 발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사주에 나무가 많다더라” 사주를 보고 온 사람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명리학에서 나무(木), 불(火), 흙(土), 쇠(金), 물(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사주 이론에서 음양오행론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음양론은 음(陰)과 양(陽)의 관계로 세상과 사물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햇빛, 그리고 그늘이라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개념화한 사상이며, 동양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소재학(국제외국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

양학과) 교수는 “여러 고전에서 햇빛을 받는 것은 양, 태양을 덮어 가린 것은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행론은 나무, 불, 흙, 쇠, 물을 통해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나무는 탄생을, 불은 성장을, 흙은 변화를, 쇠는 수렴을, 물은 저장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불→흙→쇠→물 순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 교수는 “오행 중 나무는 탄생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나무라는 물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음양오행론과 상술한 22글자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명리학 이론을 구성할까. 명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음양오행론의 안에 명리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음양오행론과 천간, 지지가 각각 독립된 이론으로 존재하다, 역사 속에서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 사주 이론이 구성됐다는 말이다. 천간과 지지는 본래 오행과 같이 자연의 생장과 소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별도로 존재했다. 중국 문자학 서적 ‘설문해자’에 따르면, 천간의 첫 글자인 ‘갑’은 새싹이 난 모습을 의미한다. 셋째 글자인 ‘병’은 만물이 밝고 선명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넷째 글자인 ‘정’은 만물이 모두 자라는 모양을, 일곱째 글자인 ‘기’는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천간이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라면, 지지는 현상이 작용한 모습이다. 소 교수는 “정오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원리가 천간이라면, 지지는 그 원리가 현실에 반영돼 오후 3시 경에 땅이 가장 뜨거운 현상에 대한 이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물과 자연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 이론으로 사람이 태어난 때를 살펴보기 때문에, 사주를 통해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태어난 연도로는 조상님을, 월로는 부모님을, 시로는 자녀를 볼 수 있다. 특히 태어난 날짜로는 자신의 운명을 본다. 김 교수는 “천간과 지지로 태어난 연월일시를 파악하고, 그 사주를 풀이할 때 오행론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주 풀이의 과정이 올바라야 결과 또한 신뢰할 만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명리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성장배경, 재능, 노력 등 사주 외에도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갖고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주 풀이를 과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명리학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능동적인 자세와 즐기려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사주 풀이로 얻은 정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신적인 안도감을 얻으려는 조언이다. 양 교수는 “사주 이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전부 무시하고, 사주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사주에 의한 운명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 또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터놓을 수 없었던 고민들을 역술인에게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심리적 안정을 얻는 ‘카운슬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림 : 박희진 기자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